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2020 CHANGE ON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



2020 체인지온(ChangeON)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다음세대재단
지은이 고병권, 이광석, 류은숙, 김범준, 이슬아
기획 다음세대재단
표지 디자인 오슬기(다음세대재단)
펴낸곳 (주)버리커뮤니케이션

Contents

2020 체인지온(ChangeON)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

여는 글 _ 4
축하의 글 _ 6

제1강 **길을 잃고서 길을 보다** _ 7
: 한 장애인야학 철학교사의 실패와 배움의 기록
고병권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자

제2강 **디지털 너머를 만드는 비영리** _ 25
: 뉴노멀 혁신은 기술송배와 다르다
이광석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제3강 **자기배려에서 출발하는 사회운동** _ 43
: 이분법에 저항하는 시간들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대표, 연구활동가

제4강 **데이터에 기반한 세상 이해** _ 61
: 믿음과 진실 사이
김범준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

제5강 **이슬아와 함께 하는 글쓰기 워크숍** _ 79
이슬아 | 작가, 해엄출판사 대표

‘작고, 깊고, 강하게’ 비영리가 마주해야 할 5개의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한해가 되어 버린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지루함이 느껴지던 표현이 간절할 소망이 되었고, ‘우리 언제 봐요’ 라는 누가 봐도 그냥 했던 인사가 진짜 인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한 해 끝에 서게 되면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는데, 2020년 끝에 서 있는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2008년, 다음세대재단(www.daumfoundation.org)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비영리 활동가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세상을 읽고, 더 크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체인지온 컨퍼런스(www.changeon.org)를 시작하여 올해로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체인지온은 행사 규모가 크고,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다루고, 느슨하고 약한 연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는 이전의 체인지온 방식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규모가 있는 컨퍼런스들 대부분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나름 쉬운 최선의 선택지가 체인지온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하기 싫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도 있고 멋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세대재단은 ‘크고, 넓고, 느슨한’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작고, 깊고, 강하게’ 열어 보기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작게 안전하게 모여,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오신 한분 한분이 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체인지온 컨퍼런스에서는 오늘날 비영리가 마주해야 할 5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비영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자 했고,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사회의 이면과 그 너머를 질문했고, 셋째, 시간을 견디고 축적하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넷째, 믿음과 당위성이 아닌 증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비영리 활동이 가능한지 필요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더 많은 사람



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가 있는지, 발견하고 만들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책은 2020년 체인지온 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작고, 깊고, 강하게’ 진행된 체인지온 컨퍼런스의 내용을 ‘크고, 넓고, 느슨하게’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연 내용을 정리했고, 컨퍼런스 현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포함하여 강연자들이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도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제한되고, 온라인 중계와 녹화도 하지 않아 아쉬워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체인지온 컨퍼런스는 카카오펍트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사기획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 필요한 기획이라며 흔쾌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진솔하게 강연을 준비하시고, 출판을 위해 원고교정, 추가자료 준비 등의 번거로움을 흔쾌히 함께 해 주신 고병권(노들장애인야학 교사)님,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대표)님, 김범준(성균관대 교수)님, 이슬아(작가, 헤엄출판사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체인지온은 작고, 깊고, 강한 만남과 배움 속에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하나의 점에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우리 앞에 마주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선과 면 그리고 입체적인 연대로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방대욱**

비영리 활동가들의 든든한 응원군

2020 체인지온 컨퍼런스 강연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안녕하세요, 카카오 소셜임팩트를 담당하는 육심나입니다. 2008년부터 함께 해 온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화두를 제안하고 기대 이상의 연사 및 지식, 재미, 의미까지 더해진 컨퍼런스였기에, 올해는 또 어떠한 새로움과 가치를 만들어 낼지 기대를 갖고 '2020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초대?', 어떤 기획일까 궁금했지만 곧바로 '역시! 다음세대재단'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수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더 크고, 더 넓고, 더 느슨한' 연결을 시도할 때, 다음세대재단은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작지만, 아니 작기에 제대로 깊고 강한 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점하기에 선과 면을 만들고 나아가 입체적인 연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한 걸음 앞에서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기에 이번 실험도 공감하고, 그 가치와 용기를 응원합니다.

올해 체인지온 컨퍼런스 안에서 만들어진 '작고, 깊고, 강한' 생각과 지식들이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연록에 얼마나 꼭꼭 담길 수 있을지, 나아가 그 생각과 지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확장될지 궁금합니다. 매년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분들에게 선물이 되었듯, 이 책 또한 비영리 활동가의 성장과 동기부여, 그리고 응원이 되는 새로운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인지온 컨퍼런스와 함께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음세대재단과 카카오 임팩트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다양한 협력 안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소셜임팩트 이사 육심나

길을 잃고서 길을 보다: 한 장애인야학 철학교사의 실패와 배움의 기록

고병권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자

길을 잃고서 길을 보다

: 한 장애인야학 철학교사의 실패와 배움의 기록

고병권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자

[연사 소개]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십여 년간 공부하며 강의했다. 니체에 대한 애정과 깊은 독해를 풀어낸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삶과 철학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민했던 시간을 담은 책 「철학자와 하녀」, 「묵묵」 등 다수의 책을 썼다. 현재는 노들야학의 철학 교사이자 노들장애학궁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십여 년을 아카데미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의 공동체에서 공부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돈과 권력,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공부를 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가 말해주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기저기 퍼뜨려왔습니다.

십여 년 전 인문학 위기론이 대두하고 대학의 학자들이 정부를 향해 인문학에 돈을 투자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돈보다 인문학'을 외치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운동인 '현장인문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부의 목적과 이유를 잃었고, '읽'이 '삶'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헤맸습니다. 다행히 그 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 놓인 이 길, 그동안 내가 앞을 담았던 텅 빈 그릇이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돈 없이 공부할 궁리

책은 크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 타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눕니다. 이 범주에 따르면 저는 '자서전형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의 부제처럼 저는 마이너스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제 인생에서 큰 흔적을 남긴 '연구공간 수유+너머(이하 수유너머)'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1998년 서울 수유동에서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한 수유너머는 10년 후에는 남산자락의 학교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빌릴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주인원만 140여 명, 각종 공부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500명이 달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2009년 여름 '작은 사건'으로 연구공동체는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저런 이름으로 분화되었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그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해먹고 공부하던 풍경이 눈에 선하더군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공부하며 늙어가야지 마음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2002)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들른 아들이 일요일 아침부터 연구실 간다며 서둘러대는 꼴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놈의 연구실은 일요일도 없냐. 대체 돈을 얼마나 준다 고." 어머니는 그때까지 내가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나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돈을 받기는커녕 내고 다닌다는 말에, 당장 하시는 말씀이 "그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였다. (중략)



...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우리 모두 '돈 없이 살 궁리 좀 해보자'는 것이다. ... 일부는 고립된 채로 잘 살고 다수는 가난한 채로 고립되어 있는 이 이상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돈으로 살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다. '웰빙'조차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에선 돈 있는 사람만 '웰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내 결론은 간단하다. 돈 벌어서 살 궁리하는 것보다 돈 없이 사는 게 우리 모두가 살 궁리라는 것."

2004년 <한겨레>에 쓴 '돈 없이 살 궁리'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다짐처럼 몇 년 동안 대표 역할(호칭은 '추장')을 하며 연구공동체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당시 제 고정소득은 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저런 매체에 기고한 원고료와 한독지가가 책을 사보라며 20만원을 후원한 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물론 강연을 할 때는 더 별기도 했지만 큰 별이는 아니었습니다. 수유너머라 이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밥값이 1,800원이었고, 함께 공부하고 생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혼이었어도 오랫동안 집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시원 월 임차료가 15만 원이었는데, 공동체 식구 7명과 월세 70만 원짜리 2층 주택을 얻어, 10만 원씩 내고 5년간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을 여러 개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셰어하우스네요.

모이면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산이라는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기 전 건물 월세만 1,500만 원이었지만 어디에서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자산'이라는 원리가 수유너머 10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며 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을 고민했습니다.

2006년쯤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FTA, 미군기지 평택 이전, 새만금 개발 등 굵직한 사회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수유너머 내부에서 자폐적으로 갇혀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이 있었고, 그해 5월 전북 군산 새만금부터 서울까지 400km를 걸으며 묵었던 동네마다 현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네 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시민독서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흑인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펼쳤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공동체 규모가 매우 커졌어요.

현장 인문학

2008년은 수유너머가 '현장 인문학'에 본격 참여하게 됩니다. 인권연대에서 교도소에서 인문학강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소자들에게 인문학을 알려준다는 게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쓴 『희망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Riches for the Poor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富)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부는 돈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는 다를 수 있으니, 그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저는 86세대 끝물이지만(91학번), 이 책은 86세대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하다 지금까지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마이크만 잡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조명을 설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도운 사람들이죠.

오늘 강의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콘텐츠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할 때 '그 식으로'가 스타일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식으로 걸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상을 전향하는 사람은 있어도 스타일을 전향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예전에

80~90년대 학교에서 유명했던 학생운동가 한 분이 TV 방송 인터뷰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TV 볼륨이 꺼져있던 터라 화면을 보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했습니다. 그런데 볼륨을 켜고 보니 완전히 그때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상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현장인문학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돕는 공동체에서도 복귀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그런데 효과가 미흡한 겁니다. 어떤 재소자 한 분은 자격증만 23개였어요. 교도소를 13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취업시켜도 못 견디고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분들은 낙담하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의 인문학』은 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책의 요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빵보다 장미'라는 것입니다. 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파괴적 행동은 고립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빈곤하지요. 금전적인 빛도 부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포위된 동물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립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공론화하고(publicize) 또 출판해야(publish)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로고스(언어로 표현되는 이성)'를 키우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인문학입니다. 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지, 왜 성매매로 내몰렸는지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장미입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진행한 인문학 수업을 통해 인문학의 제대로 된 목적과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인문학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인문학 부흥사업인 HK코리아(인문한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문학 공부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문학이 돈'이라며 투자를 독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보다 인문학'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돈이 아니라 인문학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냥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

이 무렵쯤이었습니다. 장애 성인들의 배움터인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이하 노들야학)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현장 인문학 이야기를 듣고 노들야학에서도 이 수업을 할 수 있

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의 심정을 교사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세 번이나 올라갔다는 자살미수 3범, 서른 살 때까지만 살고 죽을 거라며 죽을 날을 미리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도 노들에 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말로 죽어버릴까봐 무서웠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차별, 배제, 억압, 소외의 수준을 알기에 그냥 어리석다고 나무랄 수 없었다. 중요한 건 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잘 살고 싶다’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무언가 필요했고 그래서 찾은 것이 인문학이다.”

선생님은 '죽고 싶다'를 '살고 싶다'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과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강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논문 발표 시간이랑 겹쳐 끝나자마자 달려갔지만 이미 강연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본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기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욕설을 하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다며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변했고, 세상이 왜 이 지경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상되는 (전형적이고 도덕군자 같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 강의실을 나오려했습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이 “아마 자기 어머니 같아서 그랬을 겁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저도 제 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외할머니 수발을 잘 하시다가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폭발을 하셨습니다.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신 선생님은 버스기사의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알아들으신 겁니다. 노들장애인 야학 교사의 글에서 그걸 또 본 거예요.

교사일지를 본 후 루쉰의 『아Q정전(阿Q正傳)』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주인공 아큐(Q)는 정신승리법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제가 가장 감동했던 부분은 아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구경꾼들이 그냥 끌려가면 밋밋하다고 시를 멋지게 지어보라는 등 구경거리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아큐는 구경꾼들의 눈을 보는 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군

중의 눈빛이 이리의 눈빛으로 보이고, 그때 자기 가슴 속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네 글자를 루신이 알아들은 거죠.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제 판에는 살아보려 했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죽고 싶다는 사람의 말을 살고 싶다고 알아듣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들야학 철학교사

어떤 일들은 미리 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2008년 그때 알아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문학 전도사가 되어 전국 곳곳으로 강연을 다녔습니다. 울산에서 강연을 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마지막 질문자로 한 학생이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지적장애인이이라며 “오빠에게 많이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제 사고 밖에 있었던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학이란 꼭 지식을 얻거나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일깨움 같은 것이라고 간신히 말해주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 학생의 질문을 계기로 많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옳은 말은 그저 옳은 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8년 10월 2일, 노들야학 철학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니라 서울교육청 앞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교육감이 장애인 교육예산을 20% 삭감하는 데 항의하기 위해 서울교육청 앞에서 수업을 진행한 거죠. 준비해간 것은 스피노자의 『에티카(윤리학)』였습니다.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있었고, 길 건너에 가게 주인이 나와 있었고, 이따금씩 지나가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수업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공부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노들야학 철학수업은 특강형식으로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유너머 동료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강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도 많았고, 참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더 해야 한다며 철학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수업 첫 시간. 학교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간단치 않은 강의인데 문해력 정도만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초등학교 버전의 책을 찾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책을 싫어했습니다. 역시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노들야학 학생들은 30대 이상 성인인데 이 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거라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을 ‘어린이화’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이 취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읽기로 하고, 제가 번역을 해서 함께 강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학생들 대부분 언어장애가 있어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회끈거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두 번 정도 되물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다시 묻기 미안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이 “니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라는 걸 알았지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드니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내내 들었던 건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3주쯤 되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 김호식

아마 이 학생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대로 포기했을 겁니다. 4주차 수업에서 한 학생이 수업을 듣다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 때리네.” 이 말은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김호식이라는 분입니다. 안타깝게 2016년 돌아가셨습니다(향년 44세). 20년간 한글교육을 받았지만 난독증으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은 말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누가 읽어주면 읽은 것이 되니까, 강독하는 제 수업이 맞았던 거죠. ‘니체가 골 때린다’는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4주차 수업에서 책 내용 중 “우리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짐승이 어슬렁거린다”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갑자기 호식 씨가 책상을 치면서 “그 동물, 여기 있다”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도 너도 나도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학생은 그 짐승을 잘 안다며,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몇 번이고 묻고, 글자판을 활용했습니다. 의사소통이 한층 나아졌고, 학기 말에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들야학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2009년 수유너머가 해체되어 어디로든 떠나야 했습니다. 지인이 있는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호식 씨

가 철학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와서도 몇 번 그를 마주쳤지만 그에게 마음을 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공동체 해체의 상흔으로 제 마음 속엔 회한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빠져 있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축소됩니다. 니체가 원한의 감정을 비판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오로지 내 것만 보느라 새로운 게 안 들리고, 다른 것을 저장하기 힘듭니다.

2016년 4월 호식 씨는 외롭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저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살길을 찾아서, 출구를 찾아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남긴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2013년에 쓴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라는 글입니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패러디한 명문입니다.

“고맙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애인으로 살아 온 저의 인생담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들 덕에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장애인에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여까진 못 왔을 것입니다. 고집이 있었으니까 여까지 왔지 고집이 없었다면은 여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집에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고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겠다는 고집으로 여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루신 강의만 했고, 복귀한 노들야학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씨도 루신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장례가 끝난 후 <한겨레> 온라인판에 그의 글이 소개되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나가면서 사람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조금 하다 말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생전에 제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지금, 이 자리

몇 년 전이었습니다. 노들야학에서는 새 학기마다 학생들과 급훈을 정하는데, “지각하지 말자”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순간 교실로 들어오는 지각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마

디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3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게 보통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가는 동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장콜’이라고 부르는 장애인콜택시를 잡는 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전에 출발해도 도착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노들야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절실히 이해합니다. 결국 급훈은 ‘지각하지 말자’를 제치고 ‘어쩔 수 없다’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왜 왔냐고 물으니 “갈 데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개 포기할 때 하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포기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거나, 불법인 걸 알지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 노들야학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그린 그림인데, 손바닥에 “안녕”을 썼더군요.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 그림에 “도망 가지마”라고 쓰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이 만남의 인사가 아닌 이별의 인사를 뜻했던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저렇게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사에서 ‘악착보살’이라는 조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자가 극락세계로 가는 배(반야용선)에 오르지 않고 악착같이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반야는 깨달음을 뜻하는데, 동자는 극락이 아닌 깨달음의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의 장소, 즉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곧 극락인데 가긴 어딜 가냐는 뜻입니다.

예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악착보살을 떠올렸습니다. 굴뚝 위로 먹을 것과 옷가지가 대롱대롱 줄에 매달려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악착보살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악착 같이 매달렸잖아요.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계속 일구면서 말입니다.

연구공동체가 깨졌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허덕였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거기’인데 가기는 어딜 간다는 생각을 했을까. 다른 곳으로 떠났어도 거기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죠. ‘내 걸음걸이가 진짜 엉터리였구나.’

내용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빈 그릇이 보이더라고요. 루신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걸 보도록 해주어서인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의 자세

“갈림길에 앉아 잠시 쉬거나 한숨 자고 나서 갈 만하다 싶은 길을 골라 다시 걸어갑니다. 우직한 사람을 만나면 혹은 그의 먹거리를 빼앗아 허기를 달랠 수도 있겠지만, 길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도 모를 테니까요.”

_ 루쉰, “쉬광핑에게 보내는 편지”(1925. 3. 11)

제가 좋아하는 루쉰의 편지글인데요. 제자 쉬광핑(훗날 루쉰의 아내)과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1925년 당시 쉬광핑이 다니던 북경여자사범대에 부임한 총장이 여성들에게 구시대적인 교육을 강요했고, 이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총장은 학생들을 탄압합니다. 계속 싸워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에서 쉬광핑은 스승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루쉰은 쉬광핑에게 답장을 썼어요. 나는 그 길을 모르겠다며 갈림길에서 사람의 자세(스타일)에 대해선 몇 마디 적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 글입니다. 어떤 성인군자나 위대한 철학자의 글도 인생을 다 살아보고 쓴 게 아닙니다. 이럴진대 누구에게 길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루쉰은 어떤 길을 갈 지에 대한 답은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1차 세계 대전의 참호전이야기였습니다. 전장이 항상 전투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다가 총 소리가 들리면 싸운다는 거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쉬광핑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쉬광핑은 ‘참호’를 봤습니다. 학교 밖에 방을 얻어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년 뒤 총장을 몰아내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노들야학의 역사를 기록한 『노란들판의 꿈』의 원제목도 원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였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가 ‘어쩔 수 없다’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노들야학은 한 때 공간이 없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쉬광핑처럼 참호를 판 겁니다.

루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죠. 루쉰은 1926년 많은 제자들이 희생된 3.18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피신을 합니다. 6개월 후 <而已集(이이집)>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반년 동안에 나는 또 많은 피와 눈물을 보았지만 내게는 잡감만 있었을 따름이다. 눈물이 마르고, 피는 없어졌다. 도살자들은 유유자적 또 유유자적하면서 쇠칼을 사용하기도, 무딘 칼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게는 ‘잡감’만 있었을 따름이다. 잡감마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던져넣어 버릴’ 때면 그리하여(이; 而) ‘따름(이; 已)’만이 있을 따름이다.”

‘따름(已)’이라는 말이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내용물이 다 빠진 뒤 ‘따름(뿐)’만 남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인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이’란 말이 소중하게 와 닿았어요.

인문학은 ‘사람의 무늬’란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무늬가 만들어 집니다. 살아온 태도와 자세 같은 것이죠.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빚어져 왔구나 하고 느끼게 합니다.

‘왜 공부를 했다. 그저 공부할 따름이었을까.’ 어디로 갈지 길은 모르겠지만 제게 ‘따름’이 있었을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철학의 한계를 넘어...더 천천히, 더 리드미컬하게

노들야학에 있으면서 느낀 건 철학이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 말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은 지적장애인에게 꿈쩍 못합니다. 칸트를 세워놔도 난감해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칸트는 상대적으로 장애와 관련해 진보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정신장애를 ‘슬픈 병’이라 부르며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고장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한계를 보였습니다.

야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 한 철학이 오히려 야만적이고 무례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철학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시민, 문명인이 아닌 자연인(Nature Human), 야만인으로 간주하고, 사회와 문명의 장벽 바깥으로 추방하거나 거기에 방치했습니다. 근대 철학은 장애인의 시설수용과 정치적 권리의 박탈을 정당화했습니다.

철학을 전하러 장애인 야학에 온 저는 이제야 ‘야만인’이 되어 철학의 만리장성 혹은 만리장성 뒤의 철학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손잡고 철학을 계몽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노들장애학공리소에서 장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림 선물을 한 학생에게 저도 『묵묵』을 선물했더니 짧은 문자를 여러 개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준 책 읽다가 생각났어요. 묵묵. 나는 말이란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는 나무라고 생

각해요. 나무는 뿌리가 잡고 제자리에 있으니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비록 느릴지라도 꿈틀거리면서 할 말을 해요. 빠른 게 익숙한 사람들은 내 속도로 얘기하면 힘들어 하죠. 하지만 서로 들어준다는 자세로 있으면 시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예요. 서로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면 소통이 되지요.”

그의 말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장하지 않게 경쾌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다가 한숨도 자고,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가보려 합니다.



Q —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소년을 위한다고 너무 공부를 강요한 듯합니다. 제 욕심만 부려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A — 철학의 과제는 성숙에 이르는 것인데, 저도 그 길을 모릅니다. 칸트는 ‘자유를 위해 들어서지 않으면 자유를 향해 성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유에 들어서고 또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용기를 내 그 길에 들어서도록 ‘치어리더’처럼 응원해주는 게 아닐까요.



Q — 책임을 갖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욕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많이 꺾였고, 초심과 다르게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제 민낯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벽에 부딪칠 때면 다 내려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럴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A — 저는 일기를 띄엄띄엄 쓰는 편이에요. 안 쓴 기간이 길지는 않고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일기를 보면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맸는데, 헤매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계속 장애인들과 철학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이 진짜 기쁨일까? 철학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게서 들은 만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좌절,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가다가 ‘한숨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 기록을 늘여놓고 관찰해보면 내가 많이 변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Q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로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자존감이 바닥인 듯합니다.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A — 요즘 저는 평소에 일의 문턱을 낮춰 놓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도 오며가며 조금씩 합니다. 아내가 뭐라 하긴 하지만요. 비장함을 털어내려면 일을 하기 쉽게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극적으로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가볍게 하자는 게 제가 최근에 갖게 된 태도입니다. 지금 길을 오래 걸을 생각이면 그래야 합니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설렁설렁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와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Q —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오랫동안 너무 비장하게 변화를 꾀하려 했습니다. 요즘 그런 비장함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시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고민됩니다.

A — 소소한 일상이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리드미컬하게, 설렁설렁하는 게 오래 갈 수 있지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한 일이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6년 전부터 주부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독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책을 읽고 느낌만 말하는 시간입니다. 책 이야기보다 이런 저런 이야기, 예를 들면 국물을 맛있게 내는 법 같은 정보도 주고받고, 설렁설렁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못 견뎌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독서 모임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기분이 더욱 좋아진 듯합니다. 소규모 강연이라 여러분이 지어주는 표정을 볼 수 있었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CHANGE ON
2020

작고,
깊고,
강하게.

디지털 너머를 만드는 비영리: 뉴노멀 혁신은 기술승배와 다르다

이광석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디지털 너머를 만드는 비영리

: 뉴노멀 혁신은 기술송배와 다르다

이광석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연사 소개]

테크놀로지, 사회, 문화가 상호 교차하는 점점에 비판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비평, 저술과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 Radio, Television & Film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문화연구, 플랫폼과 커먼즈, 인류세, 포스트휴먼, 비판적 제작문화 등에 걸쳐 있다. 지은 책으로는 「디지털의 배신」 외 다수가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만큼 기술에 열광적인 사회는 드물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동선 추적 등 K-방역은 첨단 신생 테크놀로지에 크게 빛지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방역을 위한 기술 보급은 전사회적으로 확대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일상(뉴노멀)에서 비대면 무균사회의 도래를 성급하게 진단하면서, 사회적 관계 회복의 방법보다는 인공지능 등에 기댄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슬로건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국판 뉴딜이 제안되고, 그 가운데 '디지털 뉴딜'이 선도사업이 되면서 우리의 기술 가속화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우린 첨단 기술의 열병을 앓지만, 사회 현실과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기술이 선사한 성장의 달콤한 열매만큼이나 기술송배가 몰고 온 우리 사회 내부의 부메랑 효과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송배와 성장증독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에서 빠져나와 우리 스스로 주류 기술의 쓰임과 다른, 이른바 공생의 기술로 매개된 사회 전환의 기획을 과연 세울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만능주의 뒤집어 보기

우리가 관성적으로 기술에 대해 느끼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꼭 기술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에 대한 주류 시각과 그것의 이면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더 이에 대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려드는 온갖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속속들이 몰라도 괜찮다는 자신감은 기술에 대한 성찰적 이해로부터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지요. 지금 코로나 국면이 전쟁이자 재앙의 시대와 흡사해서, 앞으로 더욱 기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수록 기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에 '여성과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논의가 많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과학 기술을 주류 남성의 지배 문화라고 아예 적대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성에 전유되었던 과학기술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끌어와 생태 친화적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테크노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술을 좀 더 여성주의적으로 해



석하는 경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고,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의 동력이기에 이를 통해서 읽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며 기술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3D 프린터,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이 주요기술로 제시된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비정형, 감정 데이터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클라우드의 말 그대로 구름 너머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해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거대 신기술들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는, 예전에 비해 기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자기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그 기술의 설계가 어떠한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운영자가 내 계정을 차단해도 큰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더욱이 저 구름(클라우드) 너머 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술의 일상화, 기술의 밀도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일상 속에서 끼고 산 것이 따져보면 이로부터 일주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마어

마한 기술들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30여 년 동안 반도체, PC가 기술혁명을 이끌었지만 이들 기술들은 좀 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일이었지, 우리 일상 속까지 그리 침투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술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새 폰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따져보면 2015년 출시된 스마트폰 정도의 기술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쓰라고 하는 건 거품이 아닐까 합니다. 과도하게 욕망하도록 만드는 기술환경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생태와 인간 사이에서 차지하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생태와 인간이 기술로 매개되며 통합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이제 그 기술을 숭배하고, 역으로 기술을 이끄는 상황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7~80년대만 해도 현대인이 기술과 멀찍이 떨어져 볼 수 있는 객관적 눈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체적으로 기술을 성찰하거나 사유하지 못하고 기술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때는 수리공이나 장인 등 무언가를 고치는 문화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에는 기술의 설계를 이해하고 고치고 다시 쓰는 이들은 거의 사라져 갑니다. 게다가 기술의 밀도가 강해질수록 기술이 신처럼 되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요.

이제 첨단 기술을 매개하면 뭔가 좋아질 거라는 단정과 유혹에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기술 신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화1. 기술은 곧 성장이다

자원이 없던 한국은 기술이 살 길이라며 수출 주도 경제와 산업화에 매진해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앞으로도 기술이 성장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삶에 많은 기술이 안착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프라이버시, 정보 남용,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한 건설 관련 공기업에서 여자화장실에 QR코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

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거꾸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결국 QR코드를 찍는 건 여성이기 때문이죠. 그 정보를 누가 볼까요. 그걸 관리하는 업체에서 봅니다. 기술의 효율과 편리를 찾고 아무런 비판 없이 기술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마치 예전부터 있던 것처럼 슬며시 안착합니다.

신화2. 데이터는 원유다

2020년 1월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활용론과 제한론이 각축을 벌였지만, 이 3법을 계기로 기업 활용론으로 데이터인권 관련 운동장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데이터는 또 다른 원유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늘 마케터들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된 오늘의 기술현실은, 데이터 '정동(情動, Affect)'이라는 감정 데이터 때문입니다. 거대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사용자를 1만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전자책 리더기에서 책을 다운받고 줄을 치는 등의 모든 고객 활동과 행위가 데이터가 되어 저 멀리 구름(클라우드) 너머 서버에 저장됩니다. 책을 읽을수록 줄을 계속 칠수록 저 멀리 서버들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이른바 컴퓨터로 분석된 주체, 즉 '알고리즘 주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문형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넷플릭스'는 이런 알고리즘 주체 유형을 10만 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10만 개의 콘텐츠 소비 인간형을 기반으로 개개인별로 최적화된 형태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 3법에 이어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선도국가'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원유라는 신화를 퍼트리고 있지만, 원유가 지금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큼니다. 원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인류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원유'라는 성장주의에 기댄, 기술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신화3. IT기술은 친환경적이다

데이터는 원유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생태 친화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기기를 냉각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 해 닷컴 기업들의 화석원료 소모량은 연간 전세계 항공기 대기가스 방출량과 맞먹습니다. 1년 동안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70.27 TWh)은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 한 해 평균을 능가합니다. 현재 전체 기업 중 IT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지구 온실가스 효과가 지금은 4%, 2040년에는 14%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전통 제조업 등에 비해 아직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산업 기반이 첨단 기술로 바뀌면서 그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IT기업도 환경문제와 분리될 수 없고 상당 부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잠시 검색하는 데 주전자 물을 끓이는 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어찌 보면 반환경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 기술문명이 선사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끊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원 자체를 변환시키고 탈탄소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신화4. 디지털 기술은 안전, 효율, 편리를 선사한다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진 직후 미국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정보인권이 크게 축소되었고, 사회 속 잠재적 위험인물들을 숙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감시와 분석 장치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기술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오래 전 교육부의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망) 시스템 도입 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정보 항목이 너무 많고, 과거 교육청 단위로 나뉘었던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반론이 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죠.

몇 년 전부터 운영되는 국가 복지시스템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도 이 복지 시스템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송파 모녀의 경우에, 시스템 입력 화면에 국가 지원 관련 해당 항목이 없어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표준화된 기술 시스템 상에서는 사회적으로 예외적이거나 소수 사례는 입력이 불가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구글에서 고릴라와 흑인 여성을 구별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각인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편견들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이를 일종의 버그라 간주하지만, 이와 같은 예러의 본질은 이들이 해당 사회의 내적 모순과 문제로 부터 출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시대인 오늘을 봅시다.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는 충분히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 숙고하지 못한 상태로 기술주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이라는 화두는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관련 기술을 적용해 방역 성과를 보였습니다.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확진자 추적기술 도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정보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과 제도적 전통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기술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그 문제점을 숙의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술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이에 쉽게 순응한다고 봅니다. 내가 우려하는 건 재난상황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재난 시절 우리가 쓴 기술 응용의 흔적이 사회 설계에 그대로 착근돼 남아 있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디지털의 배신'이 더욱 가속화될 공산이 큼니다. 기술은 한번 도입되어 안착되면 이를 다시 걷어내기 매우 힘듭니다. 법은 눈에 잘 보이고 합의를 통해 바꿀 수 있지만 기술은 한번 익숙해지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안전, 효율, 편리라는 명분으로 늘상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우리 사회의 운용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화5. 현대인은 선택과 다양성이란 정보 풍요 속에 산다

현대인이 수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풍요롭게 소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세상이 갈수록 '납작한 취향' 속에 각자를 가두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해봐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납작하게 만듭니다. 알고리즘 주체가 콘텐츠를 권유하면 바로 그것이 내 취향이라 여기고 그것을 소비합니다. 기술이 보여주는 것, 기술이 추천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이 이전에 지닌 기호와 취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른바 확장편향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과 여럿의 다양성 대신

우리도 모르게 많은 가능성을 제쳐놓고,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것을 매개해 우리가 이전에 가진 취향과 생각이란 갈매기 속에 계속해 갇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화6. 비대면 자동화는 무균의 소비시장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현실이고, 우리에게 소비의 편리함을 줍니다. 그런데 비대면에서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인간의 몸을 쓰는 '산노동'이 늘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배달의 예를 들면, 이는 비대면 유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플랫폼 '유령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령노동이란 인공지능의 수발을 들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비숙련 노동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택배와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배달앱의 심부름꾼인 셈입니다.

국가에서 인공지능 인력양성을 위해 애쓰는 데이터 레이블링(data labeling: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도 이와 비슷한 노동입니다. 일종의 인공지능 '눈알 붙이기' 같은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 노동을 수행하는 유령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대부분 인공지능이 인간 임금 노동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간의 산노동은 데이터 허드렛일을 하는 보조노동 유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비대면은 우리에게 무균의 소비시장을 선사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속 대면(유통과 물류) 노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청정해질지 몰라도, 유령노동의 현장은 그만큼 바이러스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기술 현실입니다.

신화7. 기술혁신=사회혁신?

혁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기술을 적용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사회 혁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앱 하나를 쓴다고 해서 그걸 사회혁신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기술에는 분명 사회에 미치는 효용성의 힘이 있습니다. 전보다 뭔가 능률이 생기고 좋아지니까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기술이 부정적 잠재 효과가 더 크다면 그건 혁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기

술을 매개로 한 사회혁신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혁신일 수는 있겠으나 사회혁신으로 인정하려면 사회 공적 차원에서 기술의 이익을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 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노인빈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들입니다.

첫째는 청년들이 폐지를 줍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낸 '리어카광고'입니다. 리어카에 현수막 광고를 부착해 폐휴지를 모으는 노년층에게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례입니다. 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노인빈곤과 생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어떠한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안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광고 등 기술의 응용 이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있습니다.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은 아예 사회적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 쉽게 기술적 해법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형 작가가 만든 '고물수레 로봇'입니다. 이 작가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로봇으로 만들어 거리 퍼포먼스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진행되자 사람들이 고물수레 로봇과 할머니 로봇을 주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인빈곤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공공예술가 보디츠코(Wodiczko)가 제작한 '노숙자 수레'입니다. 노숙자 수레에는 작가가 쇼핑카트를 개조한 수레에 노숙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장치를 넣었습니다. 숙식이 가능한 기술적 수레 장치를 통해 작가는 노숙인들 자신의 자립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례 중 두 번째 '고물수레 로봇'과 마지막 '노숙자 수레' 방식이 현실의 약자 문제를 드러내는 데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노인빈곤, 노숙인 문제를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도입할지에 대한 성찰적 사유까지도 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기술의 사회 적용과 관련해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회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신화8. 공유경제는 커먼즈(공유)의 덕목을 쌓는다

커먼즈(communs: 공유)는 구성원들 스스로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그들 자원의 유무형 자원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가치를 공동의 부로 재생산하는 조직체를 뜻합니다. 서울시에서 꽤 오래 전부터 '공유도시'에 대한 논의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는 본래의 커먼즈 개념과 다릅니다. '커먼즈'는 서로 연대하고 가치를 나누는 호혜성에 기반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경제는 '중개(sharing)' 모델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앱도 중개 플랫폼일 따름이고, 커먼즈라 보기에 민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개인이 이윤을 거의 독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커먼즈의 호혜적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가령, 플랫폼 노동이나 차량 공유경제를 보면 그것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그것이 플랫폼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 호혜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을 매개해 인간을 자원처럼 다루고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유경제는 환경 측면에서도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포장용 쓰레기나 공회전 차량증가와 탄소를 배출하죠.

원래 커먼즈는 우리나라 전통의 품앗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에서 딸이 가정 엄마들이 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정해 동네 아이들의 저녁밥을 챙겨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일종의 호혜적 커먼즈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호주 시드니 한 별장에서 대가 없이 그 집주인의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숙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휴가 떠난 집주인 대신 고양이 밥을 챙겨준 일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호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친구나 아는 사람들 사이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일종의 이웃간 친구간 우정이자 미덕의 문화죠. 지금은 이런 잠자리 나눔의 비시장적 우정의 가치 또한 에어비엔비 등 중개경제 모델이 가져가버린 현실이죠. 어찌 보면 집밥 공유나 잠자리 공유가 진정한 커먼즈(공유)라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도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에어비엔비 등이 품앗이, 잠자리공유, 카풀 등의 전통적인 비자본적인 사회적 관계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유의 가치를 플랫폼 중개 모델(공유경제)로 만들어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유(중개)경제는 그런 것을 시장안의 금전적 거래로 다 환원시켰습니다. 기존에 호혜가 가능했던 영역들이 있었지만 중개 플랫폼이 어지간한 유무형 자원들을 다 매칭시키고 시장의 논리 아래 복속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앱을 통해 임상피험자와 임상 실험실을 매칭하는 한 플랫폼 업체의 지하철 광고를 공포스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익히 알던 '공유(커먼즈)'와 자본주의적 '공

유(중개)'는 다르고, 후자가 전자를 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디지털 너머, 커먼즈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쉽게 착각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화와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넘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기술 신화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만드는 데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커먼즈'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봐도 좋겠습니다.

먼저 현대 사회 '커먼즈'의 유형은, 여러 분류 방식이 있지만 간단히 보자면 물질과 비물질 커먼즈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	특징	자원	사례
물질 커먼즈	경쟁적, 지대 의존적, 자본주의적, 전통적 자원관리형 공동체 모델	어장, 수로, 산림, 목장, 농경지 등	경의선공유지, 공동체은행 빈고, 전통적 공동자원 관리방식
비물질(정보) 커먼즈	비경쟁적, 결속력 낮음, 원격 공동 생산 가능, 복제, 도래간 협력 생산, 개방적 온라인 공동체 모델	블록체인, API, 토렌트, 리눅스커널, 아파치 웹서버, 우분투(Ubuntu), 카피레프트 문화, 플랫폼 기술 등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위키피디아, 지식저장소, 인터넷 아카이브, 과학 퍼블릭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커먼즈, 스노우든 아카이브, 플랫폼 협동조합 등

물질 커먼즈는 일종의 반영구적 시민 공동의 자율 지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최근의 예로는 도시개발에 밀려난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의선공유지 자치구 선언'과 공덕역 일대 지역의 스쿼트(점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구성원들이 퇴거된 상태이지만, 당시 시민들이 이 공간을 점유했던 이유는 시가 국공립 유휴지를 기업 위탁으로만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커먼즈적 공간 활용 계획에도 평등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여러 문제들(재개발, 공해, 에너지 소비, 공정 무역, 지식 공유 등)은 물론이고 이 공간을 토대로 시민 스스로 호혜적 자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응축돼 있습니다. 물질 커먼즈는 이렇듯 특정 장소를 점유하며 특정의 자원(어장, 수로, 산림, 목장, 농경지 등)을 관리하며 벌이는 오래된 시민과 주민들의 자율과 자

치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물질 커먼즈는 말 그대로 디지털 논리에 기반한 커먼즈 활동을 의미합니다. 가령,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협동조합, 오픈소스형 플랫폼, 커먼즈 라이선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자원은 좀 더 비물질적 데이터와 IT기술 자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뉴욕의 플랫폼 협동조합 '업앤고(UP&GO)'란 곳은 남미 이주여성들이 주축인 돌봄, 청소 노동자들의 연합입니다. 시장 이익을 독식하는 공유(중개)경제 플랫폼에 대항해 만든 커먼즈 결사체입니다. 조합원들 스스로 기존에 플랫폼업자들에게 크게 돌아가던 건당 수수료를 낮추고 이익을 나눠 공유하고, 일부 수익은 플랫폼 유지를 위해 재투자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투자회사, 기술지원팀과 뉴욕시가 결합되어 업앤고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는 근간이 됐습니다. 이는 기술을 매개체로 결사체를 만든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업앤고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모델이라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이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기술을 통한 조직화 사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루미오(Loomio)를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루미오 조직 앱을 통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노조와 협동조합과 비영리 단체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배달이나 택배는 한 데 모이기 힘든 환경입니다. 물리적 시공간적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은 그들 사이 네트워킹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무브커먼즈'입니다. 다음세대재단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데, 이는 일종의 라이선스 모델로 커먼즈 마크를 붙인 모든 비영리조직들은 기술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커먼즈 플랫폼 가맹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커먼즈 인증 단위들이 지닌 공유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을 쉽도록 하게 하고,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공유 자원이나 노하우를 다른 공동체와 나누거나 함께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주류 가치의 전환...연대, 포용, 혁신

정리하면, 커먼즈를 통해 우리 사회 주류 가치인 성장(경제), 효율(사회), 혁신(기술)에 매달리는 조급성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보다는 연대, 효율보다는 포용, 혁신보다는 생태 가치에 의거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재난사회를 넘어설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 기술에 개입할 핵심 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후환경, 성장중독의 문제에 대해 그린뉴딜 등 탈탄소 생태전환을 위한 기술 대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갈수록 그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어 가는 그림자노동과 유령노동 등 위태로운 노동 문제에 대해 플랫폼 기술 연대와 결속의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균의 비대면 자동화 사회를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성장 이면의 기술 예측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 확장과 공생을 위한 기술 민주주의적 합의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조직 또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 약한 고리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원적으로 기술과 관련해 제언을 드리자면, 일종의 '기술성찰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밀려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뒤집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기 조직과 기관들 내부에서 숙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론화하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도모하는 데 기술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조건 안에서 함께 '공생공락(共生共樂)'할 수 있는 기술의 의미를 찾아내고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Q —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군가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센터에 미술상담 받으러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센터에 오기만 하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해졌어요. 그렇지만 핸드폰이나 노트북 자체가 없다 보니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 — 교수님의 책 『디지털의 배신』에서 '온라인 테두리에 갇힌다'는 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업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부는 이를 컨트롤하면서 실적 할당량을 줍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존엄을 생각하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아내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A — 이미 존재하는 구조적인 무게감으로 인해 조직 안에서 특정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세웠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큰 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직 내 기술의 비민주적 상황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창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효율성과 편리 기반의 조직 내 관리시스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효율만 강조하는 데이터 시스템은 더 확장될 것이고 더욱 세밀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조직 내 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공론화하고, 시스템에서 탈락되고 배제되는 사례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기술의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Q — 탈성매매여성 자활을 돕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여성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입력 일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이 분들이 20대 초반인데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도록 지원할까 막막해집니다.

A — 만들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릴리쿰’이라는 곳에서 전기파리채를 전기충격기로 만드는, 일종의 여성주의 기획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작업을 통해 제작에 임하는 이들은 기술에 대해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하찮은 기술조차 충분히 한 사회의 여성 폭력과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감각은 중요한데, 이런 작은 기술 배움의 방식조차 탈성매매여성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스스로 기술을 매개해 삶의 모순에 대한 사유와 성찰력을 키워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 비영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술혁신이라는 주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 제가 학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키우고 싶으면 기술이 지금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면, 본인이 졸업 후 진로에서 적어도 기술의 가야 할 방향을 잘 간파하면서도 타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 미래형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설

득합니다. 학생들에게 기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와 함께 그것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일종의 기술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아마도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는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기술 혁신의 문제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더불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현재 비영리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전환적 시각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계측 가능한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좀 더 질적인 사회 가치에 근간을 둔, 이를테면 공유 지표, 호혜 지표, 환경 지표, 기술 민주주의 지표 등 질적 요소를 성과 측정 항목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관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도 상급 지원기관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요.

Q — 제가 속한 재단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여성활동가분들이 여행 가는 사업을 지속해왔는데, 코로나19로 고민 끝에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내년 사업에는 강연내용을 반영해 기술에 대한 관점과 고민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 — 앞으로 우리가 승배했던 기술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어찌 놓을 것인지 우리 자신의 좌표값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다음세대재단이 기술의 격랑으로부터 잠시 떨어진 채 마치 거꾸로 거슬러가는 듯한, 소수 정예가 밀도있게 참여하는 이번 대면모임을 마련해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원격 강연과 수업 등을 통해 관객과 수강생은 모두 화면 저 뒤로 사라졌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화자는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그것으로 행사는 관계 감각을 익힐 틈 없이 끝나버립니다. 기술로 매개되지만 제대로 된 관계적 매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한 수 백명의 익명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진솔하게 눈 맞추며 관계적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대면이 주는 공동의 관계 감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면이 주는 힘과 기술의 장점을 함께 갖고 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해주신 기술로 인한 애로, 스트레스, 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제기하고, 연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주로 첨단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기술, 대체 기술, 오픈소스형 기술, 쓰고 버린 좀비 기술에 대한 가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실천'은 정보 오남용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의 친환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도 버려지고 소외됩니다. 사양이 좀 오래됐다고 서랍이나 창고 속에 들어간, 좀비화되어 소외되는 기술 장비와 물건들에 다시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소외된 것들을 주목한다는 건 지금 향하는 첨단기술로의 속도에 대한 조절을 요구하는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더디게 가는 기술, 성능이 떨어지는 모자란 기술, 단순하지만 고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꼭 좋은 매체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메모를 남겨 공감을 표하는 '포스트잇'도 매체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영화감상평을 쓰라고 할 때 손으로 쓰게 합니다. 한 네다섯 장 쓰면 손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그런 아날로그 감각을 경험하게 하고, 쓴 글을 사진으로 찍어 PDF 파일로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디지털감각에 맞춰 온라인으로 코멘트를 하지요. 첨단의 방식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아날로그적 감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느껴보게 하려 합니다. 느린 기술과 빠른 기술, 아날로그와 디지털, 로우 테크와 하이 테크가 함께 병존하며 그에 맞춰 우리의 기술 감각과 리듬도 선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에 뒤쳐진다는 공포심, 불안을 털어내세요. 다소 모자라고 떨어지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소통과 성찰적 기술감각을 위해 이런 오래된 것도 필요하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배려에서 출발하는 사회운동: 이분법에 저항하는 시간들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대표, 연구활동가

자기배려에서 출발하는 사회운동

: 이분법에 저항하는 시간들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대표, 연구활동가

[연사 소개]

인권운동을 한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운동 사랑방'을 거쳐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이다. 지은 책으로 『인권을 외치다』, 『사람을 옹호하라』, 『심야인권식당』,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 『아무튼 피트니스』 등이 있다.

저는 NGO나 비영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용어들 자체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의 성격은 다양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지향은 같을 것이라 보고, 저는 넓게 '사회운동'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과거 사회운동이 '반대자 또는 거부자'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오늘날에는 '동반자, 협력자, 무슨 무슨 서비스의 제공자' 같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보다는 특정한 사안을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양한 조직 사이에, 또 조직 내부에(세대별로나 성향별로나) 존재적 가치를 둘러싼 이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곳곳하다는 것은 변화에 둔감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칙 속에서 곳곳함을 지켜나가고, 그저 견뎌내는 시간이 아닌 만들고 가꾸는 시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건 제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깊이 파볼 수 있는 고민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무슨 고민을 해왔는지,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미흡하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무턱대고 버티는 인내나 경쟁적인 자기계발이 아닌 자기배려이고, 세계를 이분법으로 보고 한 편을 취하는 데서 벗어나 복합적으로 보고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기배려에서 출발하는 사회운동 : 이분법에 저항하는 시간들'로 정해보았습니다.

'시작' 전의 시간들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많이 다녔지만 이런 좌담은 좀 낯서네요. 따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도 딱딱한 강의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으로 우선 제가 지나온 시간을 말씀드려봅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난한 가정형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권 분야에 첫발을 댈 때 아동인권부터 했던 것도 이런 영향인 듯합니다. 극빈 상태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자존감 손상의 경험이 오래도록 제 자신을 주눅 들게 했습니다. 아동기에 존중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꿨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사회복지사'라는 말이 없었지만, 막연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TV에서 휴먼다큐멘터리를 봤던 거였습니다. 심장병 걸린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청소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아침에 아



버지가 밥상을 차려주고 일 나가면 아이는 종일 아버지만 기다립니다. 아이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방송이 끝나는 걸 보고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의 무게를 느껴 부모님 몰래 벽을 보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른들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사회사업가(당시에 쓰던 말인 '사회사업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막연하게 저런 일에 개입하고 싶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무튼 사회사업가의 꿈을 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면 보통 딸은 교육을 안 시키던 시절이었는데, 엄마는 대학에 안 가고 취업하는 것에 매우 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 입시성적이 예상보다 안 나와 점수에 맞춰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너무 다니기 싫은 겁니다.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일과는 무작정 걷는 거였어요. 학교 간다고 집에서 나와 일단 가기는 합니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학교 밖으로 나와 종일 발뒤축이 끌릴 때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골목이 없어요. 하루에 두 번 남산을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 가까이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이걸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고 학비도 아까워서 그해 12월경 부모님 몰래 자퇴

를 했어요. 자퇴서에 도장 찍고 나오는 데 채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한 자퇴이지만 학교 행정실 누구도 말리거나 이유를 묻지 않더군요. 그때 세상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나는 성인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퇴생은 신분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자퇴 사실을 들킬 때까지 6개월 동안 소속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소속이 없는 사람은 개입을 할 수 없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친구는 흥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끊더군요. 저한테 참여하지 않겠냐는 권유도 없이.

그러다가 자퇴한 것을 부모님께 들켰습니다. 기가 막히셨지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셨어요. 그동안 신분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엄청 지친 상태여서 바로 "다시 학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입시 공부를 다시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런 대답이 나온 거죠. 소속 없음, 신분 없음의 상태일 때는 사회가 제일 인정해주는 방식,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학벌 체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3이었던 여동생과 입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제도가 바뀐 터라 이번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공을 선택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렸을 적 품었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다시 꺼냈고,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1988년 다시 대학신입생이 되었지만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학생운동 막바지 시기였지만 그때도 시위가 잦았고, 강의실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격랑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학 4학년 때인 1991년에는 강경대라는 학생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고,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 당시 저는 총학생회 선전부장으로 주로 현수막과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때의 자료화면에 나오는 현수막, 만장 글씨는 대부분 제가 쓴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했으니 한 학기를 더 다녔고,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엄마가 졸업하는 저를 보더니 지겹다고 하셨어요. 학교 문 나서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다시 대학에 들어갈 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취직을 안 하고 인권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월급 한 푼, 사무실 한 칸도 없이...

왜 인권운동을 시작했을까

‘인권’이란 말조차 생소한 때였지만 인권운동을 시작한 건 기존 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총학생회에 있을 때 학교에서 연합집회가 많이 열렸고,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태도,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졸업 후에도 사회운동을 계속하자는 마음이었는데, 기존 사회운동 조직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 누군가 인권운동을 권유했습니다. 운동권 마당밭이었던 그 분도 기존 운동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니다. 처음 ‘인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니다.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었지만 도전해보자는 마음이었죠.

1992년 여름 대학을 졸업하고, 마당밭 선배가 소개해준 분을 찾아갔습니니다. 임시로 쓰고 있던 사무실에는 텀링 책상 하나만 있었습니니다. 그 분은 아동, 노인뿐 아니라 소위 잡범으로 불리는 사람까지, 누구에게나 인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니다.

잠시 비어있는 남의 사무실을 잠깐 사용했던 터라 조만간 그 사무실에서 나와야 했고, 이후 모임은 제과점, 중국집, 카페 같은 데서 했습니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한국은 1991년 비준) 비준에 따라 유엔에 제출할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니다. 이를 계기로 인권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며 아동인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니다.

그때 아동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니다. 당시 아무도 아동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보통 ‘불쌍한 아동을 구제해줘야 한다’ 또는 ‘육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권리와는 거리가 멍니다. 당시 기획했던 교재 제목이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입니다. 아동에게 권리라는 말을 붙인 게 그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동은 단지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니다.

인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욱 인권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니다. 여기저기 인권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녔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엠네스티에서 인권 교육 연수도 받았습니니다. 공짜로 자기 집에 방을 내어 준 그곳의 활동가와 술한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

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교육이 끝나면 심화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권할 게 없었습니니다. 인권은 법보다 넓은 개념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습니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강연은 한 번 하면 잘 잊어버리니 책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니다.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한다고요? 글쓰기가 즐겁다고요? 물론 그렇게 느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글쓰기가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하기에 글을 쓰게 되었고, 한 쪽지 한 쪽지 썼던 것들이 모여 책이 되었습니니다. 여러 사람과도 함께 쓰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2009년에 나온 책이 『인권을 외치다』입니다.

어쨌든 28년 동안 인권운동을 하면서 여건이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니다.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학원강사를 비롯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니다. 그중 제일 오래 한 아르바이트는 식당 주방 노동자로 만 14년을 채웠습니니다. 주말과 월요일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는 조건으로요. 피곤했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인 몸이 아니라서 자유로웠습니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자유의지를 발현했던 게 버팀목이 된 듯습니니다.

몸과 정신의 이분법

보편적이라는 게 인권의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습니니다. 성, 지식, 나이, 인종, 국적 등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인권으로 뭉뚱그리는 보편성이 독이 됩니니다. 차이를 존중하는, 살아있는 인권 보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권이 다양한 차별을 지적하지 않으면 인권 보편성을 지킬 수 없습니니다.

성 차별, 인종 차별, 나이 차별, 지적 차별 등으로 공부를 확장하다보니 제가 써온 글도 변천하게 됩니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쓴 것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니다. 앞의 것을 부정해야 새로운 게 생길 수 습니니다.

부정한 것들 중 하나가 강연 주제와 관련된 ‘몸과 정신의 이분법’입니다. 몸과 정신을 분리하는 건 오랜 고정관념이었습니니다. 사회운동, 사회복지에서 혼신, 헌신이란 말을 참 좋아습니니다. 저도 그랬습니니다. 정신적으로 애를 쓰면 물리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은 몸과 정신이 따로 놀지 않아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이분법에 저항하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

니다. 이 과정에서 쓴 책이 『아무튼 피트니스』입니다. 인권운동가가 피트니스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하면 잘 믿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억지로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개인교습을 권하더군요. 그냥 걷기만 할 요량으로 간 거였는데, 영업을 당한 셈이죠. 걷기만 하니 재미가 없기도 했고요. 없는 살림에 고액 교습비를 내며 운동을 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몸이 달라지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여유가 생겼고요. 몸과 정신이 따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을 관찰한 『인권을 외치다』 편집자가 제가 만날 때마다 피트니스 이야기만 해대니 ‘아무튼’ 시리즈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시리즈 1호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성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창피하게도 선에 들어서서야 페미니즘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2019년 나온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라는 책은 페미니즘 공부의 첫 시도입니다. 내년에는 인권과 페미니즘의 접근으로 돌봄을 바라보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성 역할과 능력 차별

인권운동 하면서 제일 많이 부닥쳤던 이분법이 성 역할 차별과 능력 차별입니다. 사회운동이나 사회복지처럼 소위 ‘좋은 일’을 하는 조직에서 성 차별이 있어도 좋은 일에 가려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누군가는 조직의 간판으로 외부에서 일을 벌이지만 뒷수습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뒷수습은 여성화된 수발노동입니다. 성별로 역할을 나누는 건 생산직 노동에서만 아니라 사회 운동 하는 조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차별은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갖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성질 나쁜 사람과는 일할 수 있지만 일 못하는 사람과는 못하겠다는. 사회운동,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적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일 못하는 걸 참지 못하고 면전에서 지적하고 화를 냈거든요. 바로 지적해주는 게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부와 여러 차례 쓴 경험을 하다 보니, 통념적인 표현인 ‘능력 차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적 잘못이 아

닌 환경적인 배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도 선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몸과 태도도 운(運)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몸과 정신의 이분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이것도 못 참아?”라고 얘기했던 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몸과 지적 능력의 차이를 알게 된 거죠. 몸이 아프기 전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말술을 마셔도 괜찮으니 남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타고난 건강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파보니 아픈 건 죄가 아닌 걸, 내가 무지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느꼈어요.

우리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주변이 기회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매를 들고 지켜보면 누군들 성장할 수 있을까요? 느린 사람이 눈치가 보여 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라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차이는 본래 열등한 것도 잘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환경을 만나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할을 고정하면 모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에 따라 보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같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 차이, 능력 차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회를 문제 삼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극단과 온건의 이분법

이분법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단과 온건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편에서 사회운동을 해왔는데요. 어느 때부터가 사회가 변하려면 이런 일 하는 사람, 저런 일 하는 사람 모두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모두 있어야 하는데, 서로를 극단으로 취급하다 보면 둘 다 설 자리를 잃을 거라 봅니다. 사회적 맥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 자리를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이 항의하고 싸우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테이블에 나가서 협상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마틴루터 킹과 말콤 엑스의 사례를 보면 킹 목사는 온건한 방식으로, 말콤 엑스는 극단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도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상반됐지만, 점차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

니까 저 사람이 나오는 다른 성격의 무대를 펼칠 수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상반된 문제의식이 겹쳐지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걸 경계하는 세력에 의해 두 사람 모두 차례로 암살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원칙을 지켰지만 서로를 적대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운동 현장을 보면 누구는 극단에서 원칙을 주장하고, 누구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행정에 참여합니다. 서로 정체성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버넌스에 참여한 분들 덕분에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원칙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깨뜨리고 싶은 이분법 중 하나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비판할 수 있어야 이 사회가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의 자리’와 타자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피해자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싸워 피해자의 자리, 피해자의 개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압체들이 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의 언어까지 훔쳐 쓰듯이, 약자와 소수자가 만들어낸 개념과 언어를 훔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눈독 들여 온 사람들이 자신도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도 피해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힘든 지점입니다. 애써 개념이나 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압체가 채갑니다. 진짜·가짜 논쟁이 벌어지고 자리가 혼탁해집니다.

이처럼 지금은 피해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정작 진짜 피해자의 이야기는 의심 받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피해자라 선포하는 순간 권력이 생기는 걸 아니까요. 더욱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1순위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운동 하는 입장에서 갈수록 인권, 권리, 피해자의 위치를 말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독점하는 언어가 되었을 때 권리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타자화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와 입장과 처지가 비슷하면 공감하기 쉽습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고통을 잘 이해하니까요. 타자화란 그럴 만한 사람으로 연상되지도 공감되지도 않는 걸 뜻합니다. 상대방은 내 인생에서 절대 그렇게 될 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극화 심화가 무서운 게 바로 타자화가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년혐오가 대표적입니다. 젊음을 추켜올릴수록 노년혐오는 더욱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 하나가 공감인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공감을 이야기할 때 나의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타자를 나의 위치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감하려면 내가 타자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될 리 없어, 저런 노동자가 될 리 없어, 저런 OO이 될 리가 없어...’라고 하면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권의 동력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 요즘 큰 고민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가슴 아픈 사례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람을 가련하게 만들어서 심금을 울리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야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드러내서 동정심을 유도하는 것은 권리 운동과 거리가 멍니다. 피해자의 자리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좀 더 센 피해자 되기를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언어가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라는 희망... ‘OO되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전에 써주신 글을 보면 공통적으로 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이 연대이기도 합니다. 연대는 저 사람이 가련하니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는 ‘OO되기’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나의 자리로 타자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OO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 되기, 청년은 노인 되기, 나이 든 분은 아동 되기, 한국인은 이주민 되기를 해 봐야 합니다. 이런 ‘되기’를 통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갖는 게 연대입니다.

‘OO되기’는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을 이분법으로 몰아갑니다. 남녀 간 대결, 세대 간 대결,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대결로 오해합니다. 페미니즘, 혹은 여성운동은 남성과 대결해서 승리하자는 게 아니

라 성 차별화된 관계방식과 구조를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청소년운동은 또 어떤가요? 나 이로 차별하는 관계와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죠. 이런 운동은 우리 몫을 더 크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 방식과 사회의 원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법에 저항하며 인권을 공부하고 실증하며 배우는 게 이 일이 힘들면서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인 듯합니다. 작년에 했던 걸 올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내기, 붙이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싫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걸 하는 것, 저는 이게 자유라 생각합니다.

자기배려는 정직함

자유는 자기배려와 연결됩니다. 자기배려는 푸코라는 철학자에게서 인용한 것인데, 자기계발과는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기계발은 남과의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한 만큼 자신이 누리는 대우와 권리라 여깁니다. 자기계발은 이를 못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돌리는 자기파괴의 논리, 타자를 파괴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기계발의 논리로는 빈민, 여성, 노인의 처지를 귀책사유로 돌리게 됩니다.

반면, 자기배려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에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는 겁니다.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기준에 비춰보지 않고, 자신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닮고 싶은 것을 비춰보고 자기다워지려 합니다. 이에 비춰서 자신을 배려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때론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러 번 절연(絶緣)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예의 차리고 쪽 가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 관계가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말 상대로 여기는 거니까요.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무시하고 억압하죠. 저의 절연은 대등한 관계에서 당신과 내 원칙이 다르니 그런 길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원칙과 다르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무릅쓰고 관계를 끊는 것, 그게 자기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배려는 말처럼 쉽지 않기에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곁’은 제 동료활동가가 즐겨 쓰는 말인데, 편먹기가 아니라 곁에 서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쓴

소리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게 곁입니다. 저는 편이 아니라 곁이 되는 사람을 주변에 두려고 애써왔어요.

상처를 무릅쓰며 내가 진실이라 생각하는 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자기배려는 혼자만의 결단이나 영웅심이 아닙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기 위해 자기배려로서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솔직함을 자기배려로 여기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절연은 아프지만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맺은 것보다 끊은 것이 훨씬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에 쓴 글, 한 말을 반성하며 갱신을 위한 부정(否定)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Q — 비영리는 가치지향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보다는 사회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좀 더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은 관계를 맺고 자원이 배분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또 사회운동은 소위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비영리, 영리로 나누는 것도 이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도 이분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한테 강연을 요청하며 당연하게 대가 없이 해주



기를 원하세요. 물론 대가 없이 주고받는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 노동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 인권운동 하면서 돈 밝힌다고 합니다. 돈과 사회운동을 서로 배척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칙에 맞게끔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예요. 독립운동도 독립자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Q — 28년의 인권운동 세월 동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끊어질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어왔는지요.

A — 제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창립멤버인데 솔직히 1년에 한 번은 짐을 썼어요. 그때마다 그만두지 못한 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남성들의 권력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했고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건방지게 여기고, 기분 나빠했지요. 그 다음에 심했던 갈등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협함도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겨울 난방이 안 돼 손이 얼어 자판을 치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의사결정을 뒤집는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짐 싸는 횟수가 줄게 된 건 누군가와 단절을 겪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끝낸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 둘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소위 ‘떡튀(먹고 튀는 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초창기에는 부당한 권력 때문에 관두고 싶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서 그만 두면 떡튀라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은 오로지 제 것이 아니라 술한 사람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인데, 떡튀하면 경험을 사유화하는 게 됩니다. 도둑이 되는 거지요.

Q — 내가 직접 겪은 피해가 아님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자격을 가진다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A — 당사자라는 말만큼 이 사회에서 오염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기’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예요. 여성 중에서도 성 차별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체화된 분을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백인이 아닌데도 백인 아닌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기’를 통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 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게 '되기'가 아닐까 합니다.

인권운동이나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당사자도 아닌데 대리, 대신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기 싫으니 시비를 거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사자, 대리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리한다(represent)는 말은 재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인권, 고통의 문제를 공론화하도록 재현하는 게 사회운동가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되는 게 연대의 관계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재현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지 못합니다. 연대의 수준, 강도는 알아지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걸 변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연대를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연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헌신의 정도로 연대의 진실성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연대는 일방성이 아니라 상호성입니다. 제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받은 게 많다고 한 것도 상호성을 뜻합니다. '덕분에 산다'는 게 상호성입니다.

일방성을 연대라고 한다면 연대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소진되기 때문이죠.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자기부터 먼저 산소마스크를 쓰고 남을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연대의 자리에 선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Q —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동료들과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꼰대'가 되기 쉬울 수도 있는데...

A — 너무 무서운 질문이에요. (웃음) 나이는 평생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적당한 나이라는 게 없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 슬펐고. 인권운동을 시작했을 때 젊은 여자로 취급하는 게 싫어서 어서 빨리 나이 들고 싶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나이 먹었으니 요즘의 경향에 뒤떨어져서 싫다'는 눈치를 받으니 평생 '적당한' 나이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내 나이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듯해요. 나이 먹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기기 쉬운데, 그걸 없애려면 지금 나이가 제일 좋다는 마음으로 내 나이와 친해지는 거죠.

저보다 어린 동료 활동가가 가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뀌 부르게 합니다. 친한 활동가들은 제 성을 따서 '류!'라고 불러요. 일단 호칭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맡을 때,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하지,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인권활동가들과 전략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발제문을 썼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꼰대 마인드라면 꺼릴 수 있지만 현장 발표회 때 같은 시간에 나가 현수막 달고 책상 정리하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뒤로 빼지 않고, 대등하게 일을 나누는 거죠.

한 가지 더 보태면, 저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라고 해서 권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통상적인 권위주의와 다르고, 사회복지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수퍼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필요할 때에 몸을 사리지 않는 겁니다. 민중교육을 주창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도 교육에서 권위를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권위 없음과 혼동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Q — 자기배려를 위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적정선에서 타협해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현명하게 대처할지 고민이 되네요.

A — 나의 원칙, 진실은 분명해야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누구냐, 맥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색깔의 언어를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 때, 대상과 맥락에 따라서 내 말투와 용어가 달라지잖아요. 별 것 아닌데 기분 상하고 시작하면 서로 자존심이 상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통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합의를 경험하고 나면 더 많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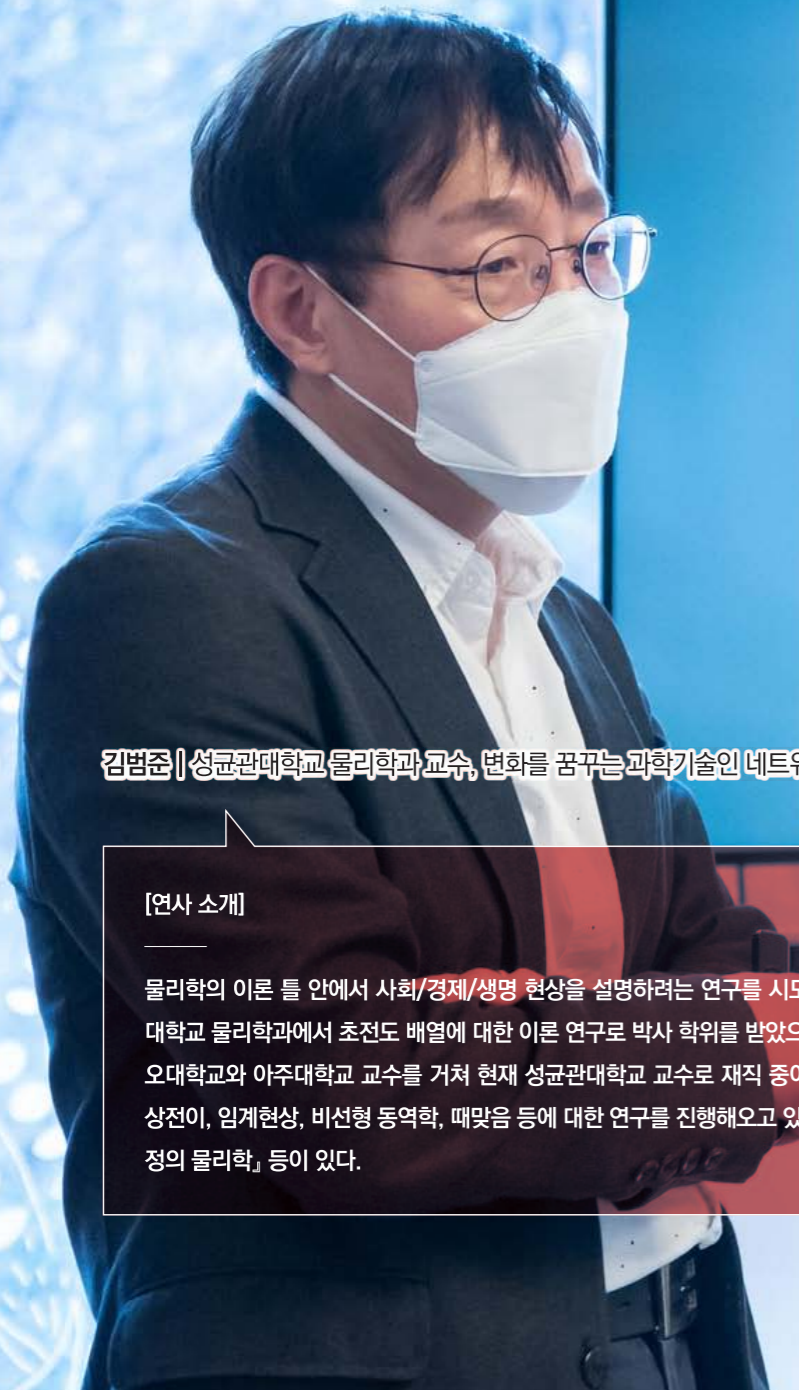
**CHANGE ON
2020**

**작고,
깊고,
강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세상 이해: 믿음과 진실 사이

김범준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

데이터에 기반한 세상 이해 : 믿음과 진실 사이



김범준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

[연사 소개]

물리학의 이론 틀 안에서 사회/경제/생명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시도하는 물리학자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초전도 배열에 대한 이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스웨덴의 우메오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계물리학 분야의 상전이, 임계현상, 비선형 동역학, 때맞춤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저서로는 「세상 물정의 물리학」 등이 있다.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들을 때도 많지만, 둘 중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의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연구의 경험을 통해 모두 함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믿음과 자연이 드러내는 진실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정교하게 관찰된 데이터,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사고 과정에서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과학연구가 아닌 세상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의 대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 강연에서는 일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해보는 우리에게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속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진실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티끌 모아 태산 이해하기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통계물리학은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리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통계는 통계물리학의 방법론입니다.

통계는 전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만 봐서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이용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기에 현실에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와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눈길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각자 일하시는 자리에서 판단의 근거 정도로 이용하실 여지는 있지만 그걸로 구체적인 개인을 찾아내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무언가 모이고 쌓이면 전체가 달라집니다. 얼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얼음 전체는 딱딱해요. 그런데 얼음을 구성하는 물 분자 하나하나는 절대 딱딱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이면, 하나가 갖지 못한 특성을 전체가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말처럼 한 사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성을 우리 사



회 전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하는' 게 통계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면 왜 달라질까요? 'One and one make two(1+1=2)'라고 할 때 one(1)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two(2)를 알 수 없습니다. two는 전체이고 one은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하나입니다. 구성요소만 알아서는 전체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one과 one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아야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관계 : 연결, 소통, 상호작용'이고, 2019년 출간한 책 제목을 『관계의 과학』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 달라지는 것

함께 하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2개의 도시 중 A도시가 B도시보다 인구가 두 배라면 재산도 인구에 비례해 A가 2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모아 보면, 2배가 아니라 2.2배입니다. 1인당 재산으로 계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일수록 재산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 건수는 2배가 아니라 2.2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창의적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측정하는 어떤 것들은 1+1이 2보다 작기도 합니다. 도시를 운영하는 인프라예요. 하수도의 길이, 주차장의 면적 이런 것들은 인구가 2배가 되면 인프라의 양이 1.8배만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난다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의 숫자도 인구가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2.2배가 되거든요. 이뿐 아니라 도시 인구가 과밀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받습니다. 이 사례도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도시 인구 증가가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모여 살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도시와 연결

앞서 도시 인구와 특허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 1+1=2(정비례)가 되는 세상이고요. 1보다 크면 인구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N명이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홀로 골똘히 생각해 특허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수는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앞에서 인구가 2배가 되면 특허의 숫자는 2.2배가 된다고 했으니 이런 가정은 맞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특허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합되어 나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만나야겠죠. 저 같은 통계물리학자는 이럴 때 사람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가짓수를 단순히 계산해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가짓수는 인구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으면 새로운 생각, 특허가 나올 수 없겠지요. 따라서 도시의 특허 건수를 N의 $a승(N^a)$ 이라고 하면 현실은 a값이 1과 2 사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골똘히 생각해서 특허를 내면 $a=1$ 이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특허를 내면 $a=2$ 인 것이죠. 즉 현실은 a가 1과 2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재면 1.15로 나와(2배 이상) 현실의 통계(도시 인구와 특허 건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고 말이 안 되는 계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만날 확률이 똑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통계물리학자가 얼마나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왜 특허 건수가 인구 수에 비례하지 않고 좀 더 빨리 늘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같으면 만만하다고 특허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성이 특허 건수를 늘려주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다양성의 관계와 관련한 한 논문에서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비교하면서 인종, 교육수준, 직업의 다양성 등 도시의 다양성을 측정합니다. 그런 후 한 도시에서 측정한 다양성과 그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를 비교했는데 다양성이 클수록 출원되는 특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의 문화적,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시적인 현상입니다. 둘째로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합리적 이성의 연결로 달라지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시민단체(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의 대표로 활동하는 이유입니다.

통계에서 주의할 세 가지

통계를 볼 때 조심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그래프를 예로 들어봅니다. 가로 축은 한 국가의 초콜릿 소비량이고, 세로 축은 노벨상 수상자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 국가의 초콜릿 소비량이 많다고 해서 인과관계, 즉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원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다(결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노벨상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했을 거고, 초콜릿도 많이 먹을 테지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상관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데이터에서 항상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게 인과관계입니다.

둘째, 평균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의자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키의 평균을 구했더니 170cm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성 키 평균이 180cm이고

여성은 160cm인 거예요. 170cm은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의자를 평균 170cm에 맞춰서 만들면 의자에 앉아서 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한 인공지능이 인종비하적인 판단을 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값만 믿지 않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알아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문조사입니다. 나폴레옹 시절 때 프랑스 남성들의 키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157cm 지점이 꽤 낮게 나옵니다. 왜일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군대 징집 기준이 157cm였기에 이보다 키가 작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여론 조사도 어느 당에서 조사하는 거라는 말을 들으면 응답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는 의심하며 봐야 하고, 묻지 말고 측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측정사례는 우리나라 남성 키인데, 완벽한 종 모양(정규분포)입니다. 남성이 라면 누구나 징병검사를 받으며 키를 재기 때문에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프랑스 군인의 키 분포는 측정한 것이 아니라 '몰어본 결과'라서 종 모양의 정규분포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홀로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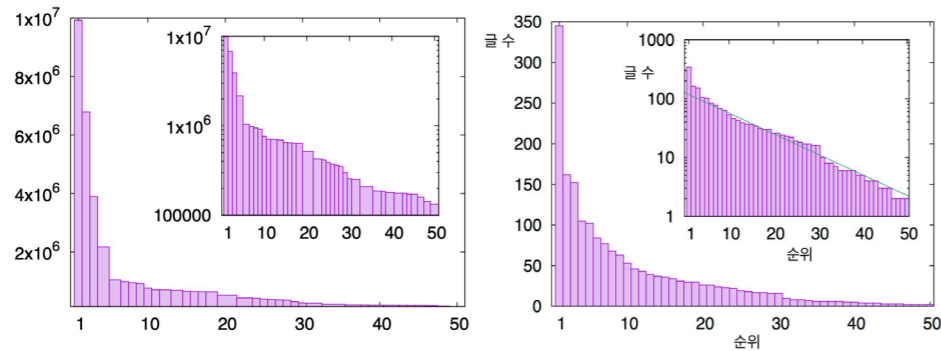
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현실의 데이터를 갖고 어떤 의미를 찾아봅니다. 제가 연구한 우리나라 성씨 분포를 보면 거대 성씨(김, 이, 박 등)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프가 지수함수꼴(L자 모양)입니다. 2000년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씨가 300개 밖에 안 되었는데, 지수함수꼴로 성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지수함수꼴로 줄어들고 다른 나라는 함수꼴이 다릅니다. 일본만 해도 성씨가 1만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성씨 분포는 현실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현실이 왜 이럴까, 이론적 모형, 함수꼴을 예측하고, 여기에 다른 부분을 추가해 비교 대상의 함수꼴을 예측해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해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독특한 성씨 분포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성을 바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

다. '성을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무도 성을 안 갈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한 달에 새로 만들어지는 성씨가 100개라고 합니다. 스웨덴 지인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잠시 살다가 스웨덴으로 돌아왔는데, 미국 거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왜 새로운 성씨가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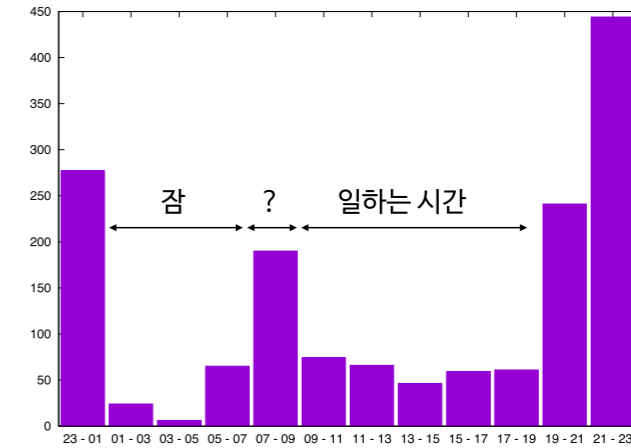
분포가 유사한 우리나라 성씨와 대학동기 카톡방 글 수

우리나라 여건 상 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제 대학동기 카톡방에서 누가 언제 글을 올렸는지를 봤더니 가장 글을 많이 올린 친구가 350개, 두 번째 친구는 150개 등의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우리나라 성씨 분포와 유사합니다. 글을 많이 올리는 친구가 대다수의 글을 올리고 하위로 가면 아무도 글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카톡방도 비슷할 겁니다.

인간동역학(human dynamics)에서 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규칙적이지 않고 '잠잠'과 '후다닥'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다윈과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편지 답장을 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었습니다. 답장을 안 쓰다가 쓰게 되면 후다닥 답장을 보내고 또 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대학동기 단톡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주일 동안 방이 조용하다 누가 글을 올리면 집중해서 글이 올라오고 그러다 다시 잠잠해집니다. 사람의 행동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제가 잠깐씩 태블릿PC로 카드게임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1년 동안 이걸 때만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모두 1,500판을 이겼고 승률이 1/3이었으니 무려 4,500판을 한 겁니다. 연구를 했는지 판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일하는 낮 시간에는 잘 안 하고, 잠들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도 많았는데, 화장실 갈 때입니다. 한 판에 딱 2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통해 제가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잠잠과 후다닥'의 패턴이었습니다.



내가 판짓하는 시간

뜨거운 손과 신기록

스포츠에서 '뜨거운 손(hot hands)'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구선수가 연달아 슛을 성공시키면 다음 슛 역시 성공할 거라며 오늘 저 선수 손에 불이 붙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통계물리학자가 이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앞의 슛과 뒤의 슛이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앞서 카드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뜨거운 손은 없습니다. 손에 불이 붙어서 카드게임마다 계속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제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언제 신기록을 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판을 거듭할수록 다음 신기록 갱신이 힘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록을 깨는 게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 가정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는 남자 육상 800m 신기록 그래프와 거의 같은 함수꼴을 나타냅니다. 이 종목에서 그 선수가 운이 좋아서, 유전적인 요인으로 신기록을 깰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키의 분포처럼 깨끗한 종 모양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은 아직까지 이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영에는 기술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육상은 기술발전 요인이 없는 듯합니다.

1년 가까이 카드게임을 했으니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1,500판을 했을 때 신기록이 70초대였으니, 60초대로 신기록을 갱신하려면 1만 판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풀밭도 있고, 공동 풀밭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풀밭은 나중에 쓰고, 공동 풀밭에 양을 풀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공동풀밭은 풀이 자랄 틈이 없겠죠. 조금 자라면 누군가가 양을 풀어놓아서 없어지니까요. 결국 그 풀밭은 아무도 못 쓰게 됩니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탄소 배출, 기후 변화, 위성 발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물리학과 교수 휴게실에 커피머신이 있는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횡수를 기입한 커피장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장부에 적힌 커피의 잔 수대로 정산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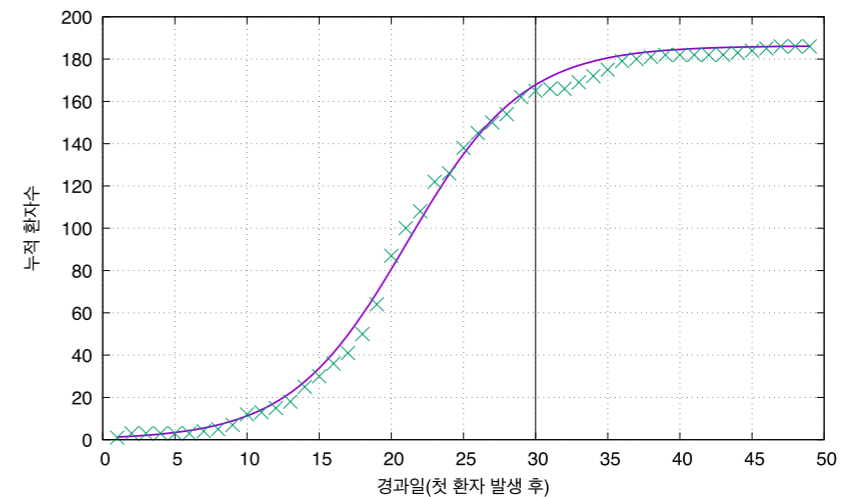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마신 커피 잔 수를 기입하는 건 아닙니다. 깜빡했을 수도 있고, 공짜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짜로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 잔당 비용이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커피 한 잔에 몇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교수휴게실의 비극'이 될지 모르지요. 어쩌면 결국 커피값이 너무 올라서 아무도 커피머신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봤더니 한 잔에 600원일 때는 239잔을 마셨고, 800원일 때는 182잔, 1300원일 때는 107잔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잔 수는 줄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비극으로 끝날까요?

그런데 가격이 오를수록 공짜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600원 정도만 해도 마신 다음에 기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1300원이 되니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맘이 쓰이는 거죠. 현재는 13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 휴게실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속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꼭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커피장부 데이터로 'Tragedy in Physicists' Common Room'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보려 했는데,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옷차림 유행, 영화 흥행, 감염병 확산

무엇인가 사회에 퍼져나가는 사례로 옷차림 유행, 영화 흥행, 전염병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옷차림의 유행과 전염병 확산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유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을 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색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하며 따라하게 됩니다.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새로운 병원균에 감염되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병원균을 전염시킵니다. 둘의 메커니즘이 비슷하면 똑같은 수학적 모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메르스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확진자 수를 그린 그래프를 보면 유행 곡선처럼 전형적인 S자 커브를 그립니다.



우리나라 메르스 감염병 확산 그래프

메르스의 전염이나 옷차림 유행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평균 4일에 한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처음에 1명으로 시작했는데 1, 2, 4, 8 등으로 전염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영화 흥행은 어떨까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내려 받아 관객이 100명 이상인 영화 6,495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위 10%의 영화가 수익의 90%를 점유했습니다. 데이터로 계산해보니 지니계수가 0.9입니다.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불균형하다는 걸 뜻합니다. 지니계수가 1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지니계수

가 0.3인데, 영화는 0.9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성씨 지니계수와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시장이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흥행의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관객이 늘어나는지를 메르스와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모든 감염병은 처음에는 숫자가 적다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영화는 그 단계가 없습니다. 초기에 일정한 기울기로 관객수가 늘어납니다. 흥행 영화 관객 수의 초기 패턴은 메르스 전염과 다릅니다. 즉, 흥행 영화의 매일 매일의 관객 수를 처음 큰 수에서 시작해 계속 감소하는 반면, 메르스는 신규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염병은 처음에는 기울기가 작다가 급격하게 커지고, 다시 줄어드는데, 모든 감염병 데이터는 거의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는 이와 좀 다릅니다.

영화 흥행과 감염병 확산의 패턴이 다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옷차림 유행이나 감염병처럼 사람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지인에게 추천하는 형태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추천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감염병 그래프처럼 S자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영화 흥행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마케팅, 광고가 흥행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추천해서 관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의 마케팅과 광고 때문입니다.

책의 반감기와 짧은 논문...평균과 기준

제 주변의 데이터를 보는 재미가 있어 이번에는 제가 쓴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책 판매도 반감기가 있어 판매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제 책은 8주마다 판매량이 반으로 주는데 이는 과학책의 평균 패턴과 같습니다. 두 달에 반으로 줄어드니 몇 번만 주기를 지나면...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책들이 다 그렇거든요. 반년이 지나도 안 줄어들고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이처럼 평균을 알고 나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이런 통계자료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도, 판단의 준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선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지요.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특정 개인이 소득이 적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판단 근거의 하나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국가별로 물리학자들이 평균 몇 페이지짜리 논문을 쓰는지 본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과학자들이 평균적으로 4페이지짜리 논문을 가장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과학자들이 쓰는 논문이 4페이지짜리가 많습니다. 4페이지 이상 분량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급격히 숫자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물리학자는 다른 나라보다 긴 논문을 덜 씁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평가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논문 편수이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짜리 하나 쓰는 것보다 4페이지짜리 5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요.

어떤 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평가 기준을 잘 만들면 사람들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테슬라가 큰 이익을 냈는데, 대부분이 전기차가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낸 거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온 거죠. 차를 파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줄여서 다른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파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이익을 사회적 합의가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회사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사례인 듯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 평가기준 등으로도 세상이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이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기업들은 알아서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옳은 것이 옳은 것’

몇 가지를 강조하며 강의를 정리해야겠네요. 서두에서 묻는 것(설문)보다 재는 것(측정)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뭘가를 물을 때도 어떻게 물을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어떤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통계를 인용한 뉴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는데요. 무작위로 1000명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 한 명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0.1%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대비해 이미 50만 명이 감염자라고 해석한 겁니다. 간단한 사고실험만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명을 검사해서 1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1000번째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999번째 조사할 때까지는 확진자 수의 예측값은 0명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되는 순간 갑자기 0명에서 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50만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가 최소한 50만입니다. 0명일 수도 있고 50만일 수도 있고 100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자가 50만 명의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혀 보건당국의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쓴 겁니다.

또 과학계를 격분시킨 것이 고령층의 독감 백신접종 문제였습니다. 고령층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많이 맞지만 독감이 아니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고령층 중에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감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죠. 이 또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이 강연의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가능하면 주관적 믿음보다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며 갖게 된 일종의 가치관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동어반복일 수 있지만 저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에서 진리에 가까운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기에 가치판단을 할 때 옳다는 것이죠.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사실에 대해 이해했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추상적인 숫자, 통계적 패턴,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준거의 기준, 준거의 틀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복지서비스 데이터인데 그런 건 찾기가 힘들어요. 개인정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A — 65세 인구는 몇 명이고, 노령인구 복지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각 데이터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 이런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하면 데이터매칭이 가능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암호화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연결하는 일종의 ‘키’를 정부에서 움켜쥐고 있고 각자에게는 익명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있어요.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합의의 영역인 듯합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들 중에 서울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밤에 사람들이 서울 중심가에서 어디로 전화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심야노선버스 배차에 활용했습니다.

Q —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교수님의 가설인 듯한데요. 함께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보여드린 데이터(도시의 예)처럼 함께한다고 모두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진다’가 아니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것 이후의 결과는 과학자가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는지를 아는 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상영관 수를 적게 하고, 입소문으로 흥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마케팅 수업을 들었더니 전염의 효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자본의 광고마케팅이 아니어도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A — 그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지, 예외로 존재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든 영역의 시장은 ‘씨본 사람이 좋아서 추천하는 방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지니계수가 0.9라는 것은, 오염된 하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천에서는 극소수의 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이 공존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선 편하게 하지만 과학자가 할 만한 소리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웃음) 그렇다고 과학자가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배제하지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Q — 빅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몰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추출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A — 그럼에도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라도 시간에 따른 변화, 주변과 비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몇 년 간 여름학교를 운영해 봤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아주 간단하게 8개 강의 중 좋았던 강의 4개를 선택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더군요. 어려운 질문은 오히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Q —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착하다는 게 보편타당하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 과학 분야에서는 착하다는 것을 ‘이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사람이 계산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에게 돈을 1만원을 주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1만원 중 딱 1백원을 받아도 이익이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해도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죠.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1만원 중 1천원 정도를 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많이 거절하더라는 거죠. 1천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지만 기분이 나쁘니까요. 비슷한 다른 실험도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기 돈을 내면서라도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혼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심지어 손해인데도,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 중 이기적인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이죠. 매우 비이성적이지만 사람은 이처럼 이타성을 추구하는 존재인 듯합니다.

CHANGE ON
2020

작고,
깊고,
강하게.

이슬아와 함께 하는 글쓰기 워크숍

이슬아 | 작가, 헤엄출판사 대표

이슬아와 함께 하는 글쓰기 워크숍

이슬아 | 작가, 헤엄출판사 대표

[연사 소개]

꾸준히 글을 쓰는 1992년생 연재 노동자다. 알바, 누드모델, 만화가 등을 하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 매일 한 편의 글을 보내주고 구독료를 받는 <일간 이슬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2019년부터 헤엄출판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일간 이슬아>를 인쇄물로 출판한 『일간 이슬아 수필집』을 비롯해 서평집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인터뷰집 『깨끗한 존경』, 에세이집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등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부업으로 10대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문장력은 비영리 활동가들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한 편의 글을 마감해온 이슬아 작가가 글쓰기의 작은 노하우들을 공유합니다. 내 이야기의 매력적인 지점은 어디일까? 어떤 부분을 더 쓰고 덜 쓸까?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까? 끝까지 읽게끔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재 노동자의 시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영리 활동가들의 글 쓰기에 매혹과 경쾌함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영리 활동가와 작가는 비슷한 직업적 고충이 있을 겁니다. 종종 글쓰기를 하는 비영리 활동가분들에게 제 경험이 나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설 <연인>으로 유명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쓰기는 말하지 않이다.” 저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멋진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이젠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감각 때문에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변가나 수다쟁이는 글쓰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해요. 말하지 않고 남겨둔 힘으로 글쓰기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간 이슬아>를 쓸 때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워크숍이나 강연하는 날에는 원고 마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말하는 일을 굉장히 줄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하는 비율과 쓰는 비율을, ‘에너지 살림’을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네요.

연재 노동자

저는 1992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를 연재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편하게 작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일과 관련해서는 주로 연재 노동자로 소개합니다. 프리랜서 7년 차인데, 작가라고 소개하면 대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작가라는 직업이 예술의 영역에서만 이야기되고, 노동의 영역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을 때, 작가들이 돈을 너무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원고청탁서에 원고료가 적혀 있지 않고, 지급일도 없습니다.

글쓰기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작업이지만 동시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 노동입니다. 더 고결할 것도 없고 더 소박할 것도 없는, 그런 노동 중의 하나일 따름입니다. 글쓰기가 노동이라는 사실을 잊으니 작가나 원고청탁자나 돈 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나 신문사에 보내는 메일에 ‘저도 노동자입니다. 연재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생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니 원고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쓰면서 ‘연재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재 노동



을 하다가 <일간 이슬아>를 시작했고, 해염출판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직업적인 정체성은 아니지만, 저는 비건(채식주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건이어도 세상에 해 안 끼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장식 축산을 더 부풀리는 데 일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운동(요가, 태권도)을 합니다. 매일 글을 쓰다가 목이 여기저기 아픈 뒤로 필사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부업으로 글쓰기 교사를 합니다. 주로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보다 훌륭한 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인보다 10대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변해 볼까? 다르게 써볼까?' 하며 변화를 매우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멋진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지요. 이밖에 부업으로 EBS에서 <이스라디오>를 진행하고 <이슬아X 이찬희>라는 밴드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최근에는 공연을 못 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쓰리잡(three job)'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간 이슬아>가 잘 될 때에도 쓰리잡을 놓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는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지탱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글쓰기를 선택한 이유

어렸을 적 한글은 빨리 뺏지만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

고, 그 속에서 닳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해요.

열 살 무렵 제게 결정적인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기를 써내면 일기만큼의 분량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담임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 일기를 열심히 쓰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일간 이슬아>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독자가 있으니깐요. 하루를 살면서도, 저녁에 일기를 쓰며 하루를 해석하니 하루를 두 번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청소년기에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런 훈련 덕에 스물세 살 때 작은 상을 받습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한 손바닥문학상의 가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가 데뷔 전에 누드모델을 3년 정도 했는데, 이 직업군과 노동현장이 재밌기도 하고 고달프고 비밀에 싸여있는 것 같아 이 경험을 소설로 쓴 거죠. 작은 상이었지만 프리랜서의 세계에서는 이때부터 깃발을 세운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는 자기가 이 때다 할 때 되는 듯합니다. 비영리 활동도 누가 임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깃발을 어느 순간 쫓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이거 한다고.

그렇지만 글로는 생계가 너무 어려워 2014년 웹툰 쪽으로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웹툰은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아는 만화작가가 창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만화를 그리는 거라 스케치북 사서 연습해서 1년 만에 데뷔했습니다. 웹툰으로 돈은 벌었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글쓰기인데 왜 만화를 그려야 되지? 하고픈 이야기를 글로 쓰면 되는데'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만화가들은 반대로 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만화로 그리면 되지 왜 글로 쓰냐고.

프리랜서의 걱정과 불안, <일간 이슬아>의 시작

어쨌든 그렇게 작가 선언 5년차가 되었을 때도 걱정과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200자 원고지 1매당 원고료가 1만원이었습니다. 중앙일간지 칼럼 한 편에 1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칼럼 한 편을 기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받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칼럼을 쓰기 위해 투자한 시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적은 돈이었습니다. 때문에 생계를 위해 글쓰기 외에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어떤 매체에 글이 실릴 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제 글이 수정되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어요. 자기 글을 못 고칠 때

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 편집자가 운문할 때 작가가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패션잡지에서 느끼한 문체로 바뀌놓는다든지, 쓰지도 않은 글을 헤드라인으로 한 다든지 하는 일을 겪으며 내용과 분량을 직접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출판사와 잡지사들 통해야 작가가 글을 쓰는 건가? 독자를 직접 모으면 어떨까?’

독자와 글을 직거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농산물 직거래를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SNS에 무료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과연 독자들이 내 글에 돈을 지불할까?’라는 질문엔 회의적이었어요. 당시 학자금대출을 갚는 게 급했기 때문에 2018년 시작한 것이 <일간 이슬아>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한 편씩 이메일로 한 편의 글을 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접 만든 2018년 <일간 이슬아> 포스터는 SNS에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제가 모델이 되어 찍은 오토바이에 앉은 신문팔이 소녀의 사진과 “한 편당 500원, 한 달 구독료 1만원” 등의 문구를 넣었어요. 옛날 뉴욕 시내에서 신문팔이 소년소녀가 하던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작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너무 숭고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분량으로 쓸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연재를 시작하니 네 배 분량의 글(A4 4장)을 썼습니다. 반응이 좋아 6개월간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365일 내내 쓰는 건 아니고요, 첫 해에는 6개월, 두 번째 해에는 4개월 연속으로 하다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중단했고, 올해에는 3개월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갈수록 너무 힘들어져서 연재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기 글감은 사랑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고생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고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대의 한계 때문에 겪는 고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기질적인 한계 때문에 겪는 고생인데,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필 이 시대에,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고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소설적이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 속에 어떤 유머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제 글쓰기의 결인 듯합니다. ‘절망 속의 시트콤’ 같은 것. 절망스러운 와중에 웃긴 이야기, 엄청 슬프고 애절한 데도 피식 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간 연재 생활의 일과, 기쁨과 슬픔

일간 연재를 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어나서 차 마시고 요가를 합니다. 요가는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구독자들이 보낸 피드백을 읽는데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기도 해요.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어제 글은 정말 별로였다, 진짜 재미없었다’ 또는 ‘얼굴이 어둡다, 몸이 어둡다...’ 20대 남자 작가들은 연재를 하면 글에 대한 평가만 받는데, 저는 꼭 얼굴이랑 몸 평가를 같이 받아요.

그 다음 ‘아침’을 먹고 낮 업무를 합니다. <일간 이슬아>를 자정 전에 미리 쓰고 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쓰리잡 체제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진짜 사무직처럼 일을 하고요. 저녁 전에 운동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 저녁을 먹고, 자정까지 A4용지 4장짜리 글 한 편을 씁니다.

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기’ 시간이 꼭 있습니다. 제가 대가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보았는데 이 시간을 가지지 않는 작가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웃음) 여러분들도 쓰기 전에 충분히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쓰게 하는가, 그것은 마감입니다. 12시 마감시간까지 긴장하며 씁니다.

6개월 동안 일간 연재를 하면 장기가 고장 난다는 걸 이 때 알게 됐어요. 혼자 글을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글을 매일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다른 피드백을 듣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몸에 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립 연재의 장단점은 명확했습니다. 직거래 방식이니 수익을 혼자 가져가고 내용과 분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 외부원고료 등 지출할 게 꽤 있습니다. 확실한 단점들로는 일간 연재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중간 단계가 없기에 모든 피드백을 다 듣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일간 이슬아> 시즌1으로 학자금대출금도 다 갚았고, 그 소식이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인생을 살 게 될 줄은 몰랐어요.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제게 ‘출판계의 문익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일간 이슬아> 이후 여러 작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간 구독경제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대단한 돈을 벌어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팬이 80명만 있어도 한 달에 80만원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먼저 시작해줘서 고맙다며 요즘 글쓰기로 생계를 한다고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기뻐했습니다.

독립 연재는 2019년 독립 출판으로 이어집니다. 헤엄출판사입니다. 이름은 제 아빠 직

업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는 산업잠수사인데, 물속에 들어가 부두나 교각을 짓고, 바다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합니다. 시신을 인양하는 일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수영, 잠수를 배웠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죽지 않는지, 조난당했을 때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팔, 다리 동작을 배웠습니다. 그 동작이 글쓰기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영(헤엄치기)도 글쓰기도 힘을 줄수록 잘 안 되잖아요. 유연하게 세상과 호흡해야 한다는 점도 그렇고요.

시선의 확장

<일간 이슬아>는 시즌3, 2020년 여름호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즌1 이후 시즌2, 3으로 가면서 글의 성격이 변해왔습니다. 시즌1이 이슬아라는 사람의 재롱잔치, 자기소개 같은 느낌이었다면 시즌을 거듭할수록 이슬아는 좁아웃 되고 넓은 시선으로 무언가를 비추는 느낌이 나는 듯합니다.

시즌2와 시즌3을 거듭하면서 저 말고 더 많은 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질리기도 했고, 나만을 이야기하는 글쓰기는 너무 좁은 세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비영리 활동을 한다는 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귀 기울이는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주어를 바꾸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오히려 주어를 '나'로 쓰는 글이 더 어색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주로 '나는, 내가' 이렇게 글을 시작했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훈련을 일부러 힘을 써서 했습니다. 수필만 쓰다가 픽션도 도입하고, 인터뷰 코너도 크게 넣고, 서평이랑 만화도 추가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쓰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동료 작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이슬아>는 더 이상 개인의 매체가 아니라 문예지 성격을 띠게 된 듯합니다.

두려웠던 주제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에서 세월호 유가족 곁의 이야기, 동물권과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 등 제 반경 1km를 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독자의 반응이 꽤 엇갈리는 거예요. '작가님, 작년엔 재밌는 글만 쓰시더니, 왜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세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적이진 않은 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연애 이야기만 쓴다고 해도, 그조차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쓰인 것이기 때

문입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 관련한 글을 두 편을 썼어요. 세월호 유가족 곁에서 팟캐스트를 만든 정혜윤 PD의 글과 유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글이었습니다. 많이 받았던 항의가 '세월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였습니다. 4월이 되어서 세월호 얘기를 두 번을 한 것, 1년에 딱 두 번 했는데 그런 질문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놀랐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유가족 분들은 지겹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독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독자층은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층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읽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독자를 위한 낭독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독자 중 시각장애인 한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해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센스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음성변환으로 읽고 있다고 하더군요. 파일을 보내줘 들어봤는데 마치 랩처럼 빨랐어요. 그 분은 원래 그 속도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듣기에 특화되어 있고, 그렇게 해도 다 들린다고. 시각장애인의 읽기 경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제 글을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낭독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 비장애인한테도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혼자 하는 플랫폼이기에 유연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어 독자와 함께 업그레이드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혹의 힘

"이젠 나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시간이 되었어. 다른 이의 얼굴을 읽을 때가 되었어."

CBS 라디오 정혜윤 PD가 한 말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감각이랑 비슷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제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 얼굴을 읽어보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존경』은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정혜윤 PD의 말 속에서 책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저는 그동안 이타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존경심과 매혹으로 움직이는 힘이 더 강하고 오래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매혹되어 인터뷰 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터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27년 동안 응급실을 청소하신 분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응급실이 진짜 말도 아니었잖아요. 그 순간에

저곳을 치운 사람이 있을 텐데, 하며 물어 물어 이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경새재에서 버섯, 고추, 오이 농사 짓는 농부인데요. 어느 날 버섯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 어떻게 재배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며 그 농부를 찾아간 거죠. 이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진짜 문학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자신을 포장할 줄도 모르지요.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확성기를 댈지를 고민하는 일이고, 이미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굳이 인터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진짜 귀한 이야기이고 세계를 지탱하는 노동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인터뷰를 끝까지 읽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 내가 너무 슬프다고 느낀 것, 내가 참 화난다고 느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글쓰기에서는 이게 곧 문장력입니다. 문장에 대한 고민은 해도 해도 모자랍니다.

“내 슬픔처럼 느껴질 때”

“남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질 때 작가의 글쓰기는 겨우 확장된다.”

제 글쓰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작가가 되기 싫었습니다. 내 슬픔만으로도 바쁜데 남의 것까지 슬퍼해야 한다니. 그렇지만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슬픔과 고통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을 겪게 되니까 작가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넓어진다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질 때도 내 세계는 확장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글쓰기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최근 저는 동물, 지구생태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식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확실하고도 지대한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으로 수많은 동물을 살처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끔찍함을 같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덜 먹을 수 있고 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칼럼을 씁니다. 감성적인 글쓰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글쓰기이니 연애 얘기보다 당연히 인기가 없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기후 이야기치고는 반응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만 했으면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구장창 사랑 이야기, 시트콤 같은 글을 쓰던 작가가 갑자기 왜 기후 얘기를 하고 그러지, 하며 읽어보는 것 같습

니다. 계속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피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없는 소리, 재밌는 소리와 함께 필요한 얘기를 잘 섞어야 하는 거죠.

장래희망을 말하며 강연을 마치려 합니다. 일단 가늘고 길게 작가하고 싶습니다. 짧고 굵은 건 싫어요. 10년, 20년 후 기후환경, 그리고 지구의 여러 모습들이 많이 바뀔 텐데, 달라질 세계에 잘 적응하고 싶어요. 작가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요가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생계를 해결하고 싶고, 헤엄출판사에서 좋은 출판물을 계속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쓰기 전에 생각하는 10가지

사전과제로 제출하신 글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 몇 가지 글쓰기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글쓰기 전에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1.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 말고 ‘글’이 되게끔 아끼자. 말로 다 소진되어버리지 않도록.

일단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비영리 활동가분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며 일하시면 좋겠어요.

2. 재미없었던 것은 재미없었다고, 후졌던 것은 후졌다고 쓰자. 억지로 미화하지 말자. 미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것인데요.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빈말과 거리가 멀게, 타협점을 찾는 방법도 있을 듯합니다.

글쓰기는 거짓말 하는 것이 자유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변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변호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작가가 아름다운 척 하면서 썼을 때, 독자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그런 건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좋은 척하는 것보다 건조하고 담백한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라는 말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연대’라는 말도 남발되지 않을수록 좋겠어요. 연대라는 건 희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남발될수록 이 말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3. 첫 문장에 너무 욕심 내지 말자. 일단 초등학생처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글쓰기라는 게 약간 부담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용기를 많이 얻어요. 글을 아무렇게나 시작할 용기. 사실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시작하고 완성한 글이 많아질수록 글이 진짜 빨리 늘거든요.

4. 가장 핵심적인 말은 쓰지 말고 참자. 다만 그 핵심을 독자가 먼저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이것은 제가 정말 도달하고 싶지만 많이 실패하는 일이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질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질투를 설명하고 싶어요.

5. 오감을 사용해서 쓰자. 내가 본 것을 꼭 독자도 경험하도록, 세부 정보와 디테일을 촘촘하게.

비영리 활동가의 과제도, 작가의 과제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감을 사는 것이죠. 그건 옳기만 해서는 도달할 수 없겠죠. 문장의 매력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독자에게 저의 글로 오시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문장을 쓰는 겁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독자의 마음속에 좋은 장면을 선물하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입니다. 글쓰기교실에서 한 학생이 물난리가 난 현장을 다녀와 쓴 글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좀비영화의 장면과 이 재난상황이 비슷해 보였을 수는 있지만, 실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좀비처럼’이라 묘사하는 건 큰 실수죠. 윤리적이면서도 좋은 묘사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6. 시간 순에 얽매이지 말자. 뜬금없는 곳에서 첫 문장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과감히 점프해보자.

제가 글쓰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자기의 글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전

말을 꼭 시간이 흘렀던 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비선형적으로 마구 편집해도 되고, 기승 전결을 전결기승으로 써도 되고, 지루한 부분은 아예 안 써도 되고, 그런 자유가 작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점프해도 괜찮아요. 글을 쓰면서 생략하고 점프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7. 대사를 기억해보자. 누군가의 명대사를 따옴표로 모셔오자. 기억의 천재가 되자. 참석자들의 사전과제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따옴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의 쓰임새를 배우잖아요. 큰따옴표는 누군가의 말을 들리게 합니다. 큰따옴표를 열심히 쓰는 작가가 되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게 명대사였다 싶으면 바로 적어놓게 돼요. 현장에서 분명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사유는 메모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훌륭한 말들은 메모하는 게 좋습니다.

8. 꿈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자.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료로 들어주는 영화. 이것은 활동가의 실무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도 일종의 유희이니 해볼 만한 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현실에, 땅에 발을 붙인 글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 중력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 잠긴 것 같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는 상상적이고, 또 몽환적일 수도 있는 장르이니 가끔씩 혼자 자유로운 글 쓰실 때는, 무슨 꿈 봤는지 써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꿈 일기를 쓰다 보면 꿈 기억력이 높아지는데요. 이 때의 이상한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많이 수집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 내면일기보다는 외면일기를 쓰자. 글쓰기는 나의 테두리를 극복하고 확장하는 장르.

자신을 2D로 생각해 보면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들을 내면일기라고 하고, 테두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쓰는 걸 외면일기라고 불러요. 외면일기는 날씨, 사람 등 신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일기도 필요하지만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외면일기를 좀 더 많이 쓰고 내면일기를 덜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즘과 자기연민

에 쉽게 감히고 나의 사유, 나의 우울, 나의 감정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동어반복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일을 겪으실 텐데, 그걸 기록하시는 건 좋은 외면일기라 할 수 있습니다.

10. 쓰기로 약속을 하자.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는 존재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구독료 안 받았으면 절대 못 썼어요. 여러분들도 신뢰하는 동료들과 글쓰기 약속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Q — 일간 연재할 때의 시간표를 보여주셨는데 글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기’ 시간에 어떤 걸 하시나요? 그리고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슬아 작가) — SNS를 자주 해요, 더 이상 게시물이 없을 때까지.(웃음) <일간 이슬아> 첫해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막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약속이니 울면서 꾸역꾸역 썼는데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다. 잘 자고 다음 날에 두 편 보내겠다.’



Q — 글을 쓸 때 시작은 어렵지 않은데 항상 마무리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나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무리가 다짐, 혹은 희망적으로 끝내곤 하는데 고민입니다.

(이슬아 작가) — 끝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교훈적인 마무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작가가 가르치려고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니까요. 교훈적인 마무리는 독자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리고 마무리에서 갑자기 미화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나왔던 좋았던 글들도 납작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미화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작가의 에세이 책에서 마지막 문장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 글쓰기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작가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탄탄하고 좋다면 중간은 알아서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부터 쓰고 시작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Q — 작가가 할 일은 어디에 확성기를 대야 할지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기후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알아서 실천하면 되지 왜 잘난 체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슬아 작가) —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완벽하지 않기에 일단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쓰는 게 무섭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 때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지충’이라는 말을 매우 싫어해요. 내가 열심히 공들여 쓴 글을 냉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 달아도 무시하시고 내 공간을 청정하게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그렇게 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